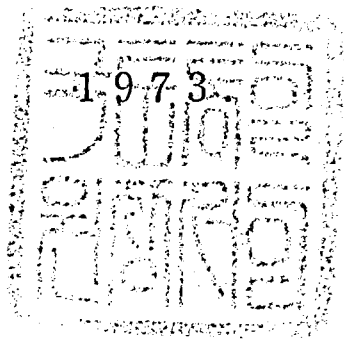


南北對話期の 大學生善導 指針書 (案)





目 次

| | |
|---|----|
| I. 統一問題에 對한 政府의 基本立場은 무엇인가 ? | 1 |
| 가. 問題 1. 韓國分斷의 背景評價 | 3 |
| 나. 問題 2. 70年代의 內外情勢評價 | 6 |
| 다. 問題 3. 統一을 爲한 새로운 決斷 | 13 |
| 라. 問題 4. 南北對話와 維新體制 | 19 |
| 마. 問題 5.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論理 | 24 |
| 바. 問題 6. 統一에 關한 今後의 展望 | 31 |
| II. 政府의 統一基本原則과 그 論理的 背景은 무엇인가 ? | 33 |
| 가. 問題 1. 現段階 祖國 統一의 基本原則 | 35 |
| 나. 問題 2. 現在政府가 平和統一接近方案으로 推進하고 있는 南北對話의 理論的 背景 | 47 |
| III. 南北對話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懸案問題는 무엇인가 ? | 63 |
| 가. 問題 1. 南北對話開設의 動機 | 65 |
| 나. 問題 2. 南北赤十字會談의 進行狀況과 問題點 | 68 |
| 다. 問題 3. 南北調節委員會進行狀況과 問題點 | 77 |
| 라. 問題 4. 北韓側의 對話中斷宣言과 韓國側의 撤回 要求 | 85 |
| 마. 問題 5. 南北對話의 懸案問題와 南北關係 改善努力 | 90 |

| | |
|------------------------------|-----|
| Ⅳ. 北韓側의 統一問題와 關聯된 提議의 不當性은 | 95 |
| 무엇인가? | |
| 가. 問題 1. 聯邦制實施主張 | 97 |
| 나. 問題 2. 軍縮主張 | 103 |
| 다. 問題 3. 平和協定締結主張 | 109 |
| 라. 問題 4. 政治協商 또는 大民族會議召集主張 | 112 |
| 마. 問題 5. “유엔” 同時加入 反對 | 116 |
| 바. 問題 6. 五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主張 | 121 |
| 사. 問題 7. 法律的, 社會的條件 및 環境改善要求 | 123 |

I . 統一問題에 對한 政府의
基本立場은 무엇인가 ?

問題 1. 韓国分斷의 背景 評價

韓國의 統一問題에 대한 政府의 基本立場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政府立場 設定의 背景要素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要素는 基本的으로 國土分斷의 背景과 統一에 關聯된 70年代의 内外情勢에 대한 政府의 評價와 이에 대처하는 決斷으로 集約될 수 있다. 먼저 分斷의 背景에 對한 政府의 評價부터 檢討키로 한다.

周知되는 바와같이 우리의 國土는 第2次 世界大戰의 終結과 그에 뒤이은 東西世界의 「이데올로기」的 分極化(bipolarization) 過程에서 南北으로 分斷되었다. 이 點에서 祖國分斷의 根源的 責任은 우리에게 歸着하는 것이 아니라, 第2次 世界大戰以後의 戰後秩序 形成過程에서 韓半島를 分割시킨 強大國 政治에 그 責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結論的 評價에 앞서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當時의 極東情勢에서 어느 勢力이 韓半島의 分斷을 選好했고 또 國內에서는 어느 側이 이에 呼應했는가 하는 點이다.

當時 韓半島를 南北으로 가른 北緯38度線은 敗戰 日本軍의 軍事的 武裝解除를 目標로 設定된 美蘇間의 軍事的 管割境界線이었다. 따라서 이 線은 日本軍의 武裝解除라는 目標가 達成된 後에는 自然 解除되어야 하고, 韓國島를 日帝에서 解放시킨 美蘇兩國은 「카이로」宣言의 精神에 의거하여 韓民族의 自主的 統一政府 樹立努力을 支持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38度線 以北을 占領한 蘇聯은 그들의 占領條件을 最大

로 活用해서 北韓을 世界 共產化의 꿈을 實現하기 위한 極東基地
로 確保할 方針下에 38 度線의 解除를 거부하고 그들의 傀儡政權을
樹立하기 始作했다. 이에 對하여 駐韓 美軍當局은 38 度線의 廢止
와 韓半島의 主權回復을 위하여 蘇聯軍 當局과 여러차례 折衷을
試圖했으나, 蘇聯占領軍의 拒否로 그리한 努力은 變번히 失敗로 들
아갔다.

韓半島 問題에 關한 美蘇의 이같은 見解差異는 韓半島의 地政学
的 位置에 對한 美蘇間의 評價 差異에 起因한다. 歴史的으로 蘇
聯은 韓半島에 隣接한 「아시아」國家로서 韓半島에 對한 領土的
野心을 갖고 있었음에 反하여 美国은 當時까지만 해도 「아시아」
의 實情에 어두운 非「아시아」國家이었으며 韓國과는 1882年 修
交했으나 한번도 韓半島에 對한 領土的 野心을 가진 바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事情下에서 38 度線은 漸次 그 性格이 軍事的인 것으로부
터 政治的 性格의 것으로 變質되고 이로 因해 韓半島 問題는 美
蘇의 見解가 對立하는 가운데 國際問題로 發展하게 되었다. 第2
次 大戰 以後 最初로 열린 韓半島 問題에 關한 國際會議은 1945
年 12 月의 「모스크바」3 相會議였다. 이 會議에서는 韓半島의 即刻
的인 主權回復에 앞서 美·蘇·英·中 4 大國에 의한 5 年間의 信
託統治實施를 韓半島 問題 解決의 代案으로 決定하였던 것이다.

이에 對하여 國內의 모든 政治努力은 너나 없이 우리 民族의
自治能力을 무시하는 信託統治의 反對에 나섰고, 全國的 規模의 反
託運動이 組織되었다. 이 運動의 初期에는 共產主義者들까지 이에

同調하였기 때문에 反託으로 結束된 民族意志를 求心点으로 한 臨時統一政府樹立의 可能性이 予見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解放以後 最初로 주어진 自主統一의 機會였다. 그러나 共產側은 蘇聯의 指令을 받아 民族全體의 利益을 無視하고, 하루 아침에 反託에서 贊託으로 態度를 바꾸고 蘇聯의 軍事的 保護下에 北韓에 共產政權을 樹立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로써 最初로 주어진 統一의 機會는 무너지고 드디어 韓國의 統一問題는 自主的 決斷의 課題에서 國際的 協力の 要望課題로 전환되었다.

信託問題를 놓고 國內의 意見이 兩分되자 強大國들은 韓民族에 對한 信託을 強要하지 못하고 韓國의 主權回復과 統一의 課題는 美國政府의 周旋으로 유엔 總會에 移管되었다. 1947年 11月 14日 유엔 總會는 유엔 監視下의 南北韓 自由總選舉로서 韓半島의 統一과 主權을 回復케 할 것을 결의하고 유엔 韓國臨時委員會를 派遣하였다. 그러나 蘇聯과 北韓은 유엔의 이같은 公正한 解決方案을 거부하고 獨自的 分斷政權의 樹立을 서두르는 一方 北韓地域內의 反託 民族勢力을 投獄하여 시베리아로 流配시키는 反民族行爲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國際社會의 協力を 얻어 成就하려던 두번개의 統一機會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平和統一의 機會를 意識적으로 忌避하던 蘇聯 操縱下의 北韓政權은 1950年 6月 25日 새벽 日帝에게 36年間이나 다 함께 서름받고 虐待받았던 同胞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며 大拳 南侵해음으로써 天人共怒할 同族相殘의 戰爭을 挑發하고 말았다.

이러한 北韓側의 6.25 挑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과 北이 平

和的으로 統一을 成就할 可能性을 源泉的으로 封鎖하는 民族的 不和와 對決의 決定的 原因이 되었고 우리의 統一問題가 國際的 關心과 反應을 일으키는 課題로 定義된 核心要素로 된 것이다. 따라서 祖國分斷의 原初的 責任은 強大國의 韓半島 政策에 있지만 오늘날까지 祖國의 統一이 平和的으로 成就되지 못하고 分斷이 深化된 것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反民族的인 平和統一忌避 乃至 武力赤化企圖에 그 責任이 있다는 것은 事實이 證明하는 바이다.

問題2. 70年代의 內外情勢評價

우리는 北韓側의 平和統一 忌避 및 各種 武力挑發로 祖國分斷이 深化되고 또한 分斷에 起因하는 民族의 苦痛과 不幸이 계속 加重되는 狀況 속에서도 祖國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하려는 努力을 단 하루도 늦춘 일이 없다.

東西間에 冷戰이 激化되는 狀況 속에서도 韓半島에는 窮極的으로 는 하나의 統一政府가 樹立되어야 한다는 韓民族의 統一에 대한 政治的 要求를 全世界에 克明하기 위해 유엔 總會에 韓國問題를 -Julg-ul 上程하여 全世界의 關心을 喚起시켜 왔고 分斷된 條件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이어야 할 韓半島 代表性的의 兩分을 防止하기 위해 單獨代表權을 主張하여 왔다. 이같은 努力을 통하여 우리는 韓國의 統一問題를 유엔의 目的 課題로 定義시킴과 동시에 韓國의 統一에 관한 公正한 解決方案을 유엔의 決議로서 誘導해 냄으로써

다른 어느 分断国家들에서도 그 例를 찾을 수 없을 만큼 韓國 統一의 必然性を 全世界에 說得해 왔던 것이다. 大韓民國 政府의 이같은 努力은 北韓側의 執拗한 拒否로 統一의 結實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한가지 分명한 事實은 全世界에 韓國이 永久히 分断될 수도 없고 分断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明白히 깨닫게 해 줌과 동시에 또한 共感을 얻어 왔다는 点이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國의 統一과 閏聯된 國際情勢는 그 論理와 樣相이 根本적으로 달라졌다. 즉 東西冷戰의 兩極體制는 勢力均衡을 摸索하는 多極體制로 改編되면서 現狀維持를 基調로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을 指向하는 趨勢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국제정세의 이같은 變化趨勢는 基本的으로 核保有 強大國 關係에서 發源되었으나 漸次 核保有 強大國과 安保協力을 맺고 있는 地域國家들의 進路에도 영향을 미치는 추세로 發展하였다. 現在 이 趨勢는 歐羅巴 秩序의 새로운 바탕으로 定着되었고 이와 併行하여 極東의 國際關係도 이 潮流에 따라 再編될 氣運이 急成熟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情勢는 現狀維持(status quo)를 基調로 한다는 点에서 現狀變更이 前提되는 分断國의 統一努力에 逆行하는 것이다. 따라서 現情勢는 우리가 이에 對抗할 수 있거나 이에 調和하면서도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새로운 方途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民族的으로 統一에 대한 希望의 危機에 直面하는 것이다.

周知되는 바이지만 韓半島는 地政學的으로 주변 強大國 사이에 끼여 있기때문에 勢力均衡情勢下에서는 그 戰略的 價值가 자못 크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韓末의 國際關係에서 示顯되었던 韓半島에 대한 주변 強大國들의 關心은 비록 強大國들의 政體는 變化했다 하더라도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가 變化되지 않는 限 그대로 놓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韓半島가 주변 強大國의 어느 一方에 예속되거나 영향권하에 들어갈 경우 주변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은 破壞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地政學的 理由이외에도 韓半島는 第2次 大戰以後의 分斷과 戰爭으로 인하여 이 地域의 平和와 安全에 관한 限 國際責任地域으로 定義되어 왔다. 따라서 韓半島는 주변 強大國 關係의 變化의 影響을 宿命的으로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分斷이 우리의 意思에 의한 것이 아니고 強大國 政治의 需要에 起因할진데 이를 克服하고 統一을 成就하는 問題 역시 國際政治의 需要를 評價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韓半島 分斷의 國際政治的 背景은 韓半島를 사이에 둔 美日軍事同盟과 中蘇軍事同盟의 冷戰的 對決關係였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어 이같은 同盟關係는 文書上으로는 살아있지만 實質的으로는 變質되었다. 中蘇關係는 軍事的으로 理念上으로 敵對關係에 있고 美日關係는 經濟的으로 競争 乃至 對決關係에 있다.

한편 50年代이래 敵對關係에 있던 美中共關係는 友好協力關係로 轉換되고 있고 美蘇關係는 60年代이래 平和共存關係를 發展시키고 있다. 또한 日蘇, 中共關係도 마찬가지로 經濟的 側面에서 協力關係를 積極적으로 發展시키고 있는 것이다. 結局 이러한 趨勢는 餘他의 事情에 變化가 없는 限 70年代에 있어 極東의 國際關係를 4

大國 相互間의 共存과 協力을 바탕으로 하는 勢力均衡關係로 發展시킬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關係는 現在 또는 가까운 將來에 있어 4大國의 國家利益의 實現에 부합하는 關係로 定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關係發展에 阻害되는 要素가 있다면 強大國들의 立場에서는 韓半島 事態인 것이다. 韓半島의 南北韓은 주변 強大國들과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密着되어 있다. 韓國은 美國과 軍事同盟을 日本과는 經協關係를 맺고 北韓은 中·蘇와 軍盟을 締結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統一을 目標로 하는 現狀變更手段이 武力에 呼訴될 때는 4大國의 直·間接 介入이 不可避한 것이며 이 경우 극동에서 4大國이 추구하는 새로운 強大國關係는 동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문에 強大國들은 軍事的 對決을 前提하는 韓半島의 現狀變更努力은 願치 않는 것이며 萬一 武力鬭爭이 韓半島 問題解決의 唯一한 代案임을 南北韓의 態度에서 確認하는 限 그들은 그들이 必要로 하는 強大國 關係의 發展을 위해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를 南北韓에 強要하는 措置를 강구할 것으로 豫見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정세의 이같은 趨移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目標의 貫徹을 위해 만들어진 所謂 勞動黨의 規約에 立脚하여 休戰線에서의 武力挑發을 비롯하여 武裝間諜을 南派하는 등 모든 手段을 동원하여 武力에 의한 對南赤化工作을 追求해 왔다. 우리는 주변정세가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緊張緩和 및 平和共存으로 轉換되는 데서 暗示的으로 予見되었던 統一에 對한 希

望의 危機가 北韓側의 情勢變化를 外面한 계속적인 武力挑発과 그
에 起因하는 緊張高潮로 한층더 심각하게 닥아오는것을 實感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27年동안 韓國의 統一問題 解決을 主要한 目的課題
로 삼아 온 유엔 内部情勢는 어떻게 變動되었는가

70年代에 접어들어 가장 注目되는 유엔 情勢의 特徵은 國際平
和와 安全을 維持한다는 유엔의 本質的 機能 즉 政治的 機能의
거의 마비되거나 鈍化되었다는 点이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世
界問題에 대한 五大常任理事國間의 見解差異로 해를 거듭할수록 意
見의 一致範圍가 축소되어 오다가 中共이 自由中國을 대신하여 常
任理事國의 地位를 얻으면서부터는 全員一致의 合意形成을 거의 期
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문에 5代常任理事國의 完全意思合致만을
有効한 유엔의 決定으로 認定하는 現在의 憲章體制下에서는 유엔의
拘束力있는 決定이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유엔 總會는
憲章規定上 強制性이 없는 勸告的 意見만을 會員國의 多數意思에
따라 決定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原来有効한 決定을 作成할 수도,
기대할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世界與論에 呼訴해서 特定國家의
態度和 立場에 影響을 미칠 수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總會의 이
같은 機能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等地에서 新生獨立國들
이 大學 유엔에 加入, 會員國 總數의 3分の2를 占有하면서부터는
世界問題에 對하여 責任있는 決定을 作成할 수 없게 되었다. 本來
世界機構는 強大國의 意思中心으로 運營되기 마련인데 70年代의
유엔總會는 一國一票主義에 立脚하여 多數의 弱少國들의 意思에 의

하여 主要한 決議가 形成되도록 條件지워져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強大國들은 그들의 利害關係가 담겨있는 主要政治問題나 紛争問題를 유엔 總會나 安全保障理事會에 上程하기 보다는 유엔밖의 協商 테이블에서 取扱하게는 경향이 증대하였다.

이리하여 유엔은 그 政治機能이 事實上 마비된 가운데 公害防止와 같은 環境問題, 南北間의 隔差解消같은 經濟問題등 超國家的 關心事만을 討議하는 機能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現在의 유엔은 어느 면에서도 韓國의 統一이라는 極東地域에서 가장 敏感한 政治問題를 해결할 수 없는 機構로 再定義해도 過言이 아니게 되었다. 이때문에 우리는 지난 25年間 韓民族의 統一에 관한 政治的 要求를 確認해 왔던 유엔에서도 統一에 대한 希望의 危機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70年代의 內外情勢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統一의 可能性을 示唆하기 보다는 우리로부터 統一에 대한 希望을 앗아가는 분위기를 造成하고 있는 것이다.

問題 3. 統一을 위한 새로운 決斷

統一에 對한 希望의 危機가 안팎으로 深化되고 있는 狀況속에서 統一의 可能性을 찾아내는 一만큼 至難한 課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統一은 現時代를 살고 있는 5千萬 우리民族의 至上課業이기 때문에 어떠한 環境속에서도 統一에의 可能性을 열어 놓는것이 우리의 民族的 使命인 것이다.

70年代의 情勢는 現狀維持를 基調로 한다는 点에서 戰後 分斷 諸國의 統一運動에 危機를 造成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趨勢는 獨逸의 경우에는 文字 그대로 獨逸分斷을 現水準에서 凍結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獨逸과 韓國이 戰後 強大國 政治에 犧牲되어 分斷되었다는 点에서는 共通되면서도 分斷에 作用하는 力学의 論理가 다르다는 点이다.

獨逸을 둘러싸고 있는 四大強國들은 獨逸의 再統一은 그것이 어떤 方法, 어떤 名分으로 成就되더라도 中歐의 勢力均衡을 破壞하고 周邊國家들의 安全에 危脅이 된다고 評價하기 때문에 獨逸의 統一을 反對하고 分斷을 固定化하는데 明示적으로 合意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는 周邊 強大國의 어느 國家의 安全에도 위협이 될 수는 없지만 周邊 強大國의 어느 一方에 排他的으로 一속될 경우 極東의 勢力均衡을 破壞할 憂慮가 있으므로 해서 分斷된 것이다.

즉 獨逸은 統一로 因해 強國이 되기 때문에 強大國들의 反對

에 直面하지만 韓國을 統一이 極東情勢를 緊張시킬 힘의 空白을 招來할 可能性 때문에 強大國들로 부터 선뜻 支持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力學的 考慮에서 볼때 獨逸의 統一은 周邊 強大國 關係가 安定되면 될수록 그 可能性이 희박해지지만 韓半島는 自体로서 周邊 強大國들의 安全危脅勢力이 아니기 때문에 周邊 強大國關係의 安定度에 比例해서 統一의 可能性이 增大될 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 韓半島 周邊에서 造成되고 있는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趨勢는 獨逸의 경우와는 달리 長期的 觀點에서는 韓半島 統一의 促進要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問題되는 것은 韓半島 内部情勢가 궁극적으로 韓半島의 統一與件을 促進할 強大國 關係의 平和共存的 展開에 支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現在 韓半島에서 高潮되고 있는 緊張과 그로인한 戰爭可能性이 強大國間의 共存秩序形成을 制約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韓半島에서 造成되는 緊張은 北韓이 統一手段으로서 武力과 暴力을 完全히 拋棄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6.25 動亂이래 武力과 暴力이 우리의 民族的 念願인 統一實現의 手段이 될 수도없고 또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體驗했다. 따라서 大韓民國은 1954年 제네바 政治會談이 失敗로 끝난 以後 卽곧 國際聯合의 協力을 얻어 平和的으로 祖國의 統一을 成就하려고 努力했다. 그러나 北韓은 休戰期間을 平和統一을 위한 準備期間으로서가 아니고 國際聯合의 警察行爲로 成就하지 못한 武力에 의한 南韓赤化를 實現키 위한 蓄力期間으로 定義하고 軍事力

增強에 광분하였다. 어느 경우에도 平和는 一方의 努力만으로 維持되는 것은 아니다. 一方이 平和를 거부할 때는 他方도 平和破壞 行爲에 対処할 힘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平凡한 論理에서 南北韓은 休戰以來 軍事的, 政治的, 社会的, 經濟的으로 對立과 反目을 繼續하지 않을 수 없고 이같은 對立相은 70年代에 들어와서는 一觸即發의 戰爭可能性을 予見케 하는 段階에 이르고 말았다. 이때문에 周辺 強大國들은 韓半島의 統一을 獨逸의 경우처럼 明示的으로 反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韓半島의 統一이 그들의 介入을 불러일으킬 武力對決을 前提하는 것일진데 그들의 利益에 背馳되는 武力對決을 抑制하기 위한 方便으로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에 默示的으로 同意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要請되는 統一努力은 武力에 의한 現狀變更이 아닌 平和的 現狀變更으로 表現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우리가 6.25의 悲劇을 되풀이 하지 않게 될뿐만 아니라 周辺 強大國들로 부터 分斷固定도 強要받지 않을 수 있는 代案이 될 것이다.

政府는 統韓情勢에 관한 이같은 判斷에서 韓半島 情勢를 平和指向的으로 誘導하기 위한 措置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1970年8月15日 朴正熙 大統領은 光復節 慶祝辭에서 大韓民國 政府의 平和統一構想을 中外에 宣明했다. 8.15 宣言으로 알려진 이 構想에서 朴大統領은 「大韓民國은 韓半島 問題의 解決手段으로 武力과 暴力을 行使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고 「萬一 北韓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圖를 拋棄하고 또한 이를 實証한다면 南北間의 人爲的 障壁을 除去할 劃期的 方案을 提議할 餘의가 있다」고 宣

말한 後 「南北韓의 어느 体制가 國民의 自由와 幸福을 증진하는데 더욱 기여하는가를 관가름할 創造와 開發과 建設의 善意의 体制競争에 北韓이 나설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 宣言은 우리 民族의 統一努力이 平和的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民族的 當爲性을 밝힌 것이며 동시에 周邊情勢와의 調和속에서 推進되어야 한다는 大韓民國 政府의 意思를 積極的으로 表示한 點에서 重大한 意義를 갖는다.

그러나 北韓은 이 提議를 一蹴하고 같은 해 11월에 열린 第五次 北韓勞動黨 全党大會에서 金日成은 報告를 통해 北韓은 四大 軍事路線을 完了함으로써 中蘇의 支援없이도 獨自的으로 戰爭을 遂行할 準備를 갖추었다고 豪言함으로써 그들의 武力赤化野慾을 들어내는 한편 速戰速決戰術에 의해 大韓民國을 侵略할 準備를 서둘렀던 것이다.

政府는 北韓側의 이같은 否定的 反應에 대해 두가지의 措置를 강구했다. 하나는 南北間의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킴으로써 戰爭一步前의 軍事의 對決相을 潛在化시키는 措置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北韓側의 奇襲兩侵에 對備키 위한 國內態勢 整備作業이었다.

前者가 곧 南北赤十字 會談 提議였고 後者가 國家非常事態宣言에 의한 總力安保態勢의 確立인 것이다.

政府는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로 하여금 南北間 離教家族 찾기運動을 提議케 하였고 이틀후인 8月 14日 北韓側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南北間의 對決構造는 對話의 構造로 轉換되었다.

南北關係를 이같이 平和指向的 對話關係로 換換시킨 政府의 措置는 周邊 強大國들로 부터 積極的 支持를 받았다. 兩獨間에는 이같은 接觸과 對話가 27年間 繼續되었지만 強大國들로부터 우리의 경우와 같은 呼應과 肯定的 評價가 客觀化된 일은 없다. 이것은 獨逸을 둘러싼 強大國들이 兩獨間의 武力에 의한 現狀變更은 勿論 平和的 現狀變更도 願치 않는다는 事實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政府의 南北赤十字會談 提議는 北韓側이 武力에 의한 兩韓赤化의 野慾을 포기했거나 人道的 次元의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除去할 용의가 있음을 確認했기 때문이 아니다. 政府는 北韓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野慾이 성숙했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그들의 武力行使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提議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間에 對話가 열렸다고 해서 緊張의 原因이 完全히 해소된 것도 아니며 또 즉각 해소될 수도 없는 것이다. 萬一 우리가 南北對話에 過剩期待를 걸고 兩侵의 위협에 방심한다면 오히려 共產側에 侵略의 기회를 提供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判斷에서 政府는 南北間에 對話가 열린 3個月後인 1971年 12月 6日 國家非常事態를 宣言하고 有備無患의 哲學에 立脚하여 모든 形態의 兩侵에 對處할 수 있는 安保總務整備作業을 서둘렀다.

南北對話와 總力安保는 相互矛盾되는 것 같으나 共產主義者들이 韓半島의 武力赤化를 拋棄했다는 証拠가 없는 條件下에서 北韓側을 우리가 願하는 平和的 現狀變更의 論理로 誘導하는 過程에서는 眞實로 不可避한 狀況的 要請이며 選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選擇한 總力安保는 共產主義者들의 武力挑發을 抑制하

기 위한 選擇이며 決코 韓半島 問題의 武力的 解決을 노리는 統一接近方法은 아닌 것이다. 우리 側의 이같은 措置를 통해 南北間에는 對話가 열렸으나 對話의 進行은 決코 용이하지 않았다. 北韓側은 内外情勢를 고려하여 赤十字會談에 應해 오기는 했으나 그들의 赤化統一野慾을 拋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赤十字會談의 對話窓口를 離散家族의 苦痛解決을 위한 窓口가 아닌 그들의 宣傳窓口로 惡用하고 人道問題와 關係없는 政治問題를 提起하여 會談의 順調로운 進行에 難關을 造成하였다. 더우기 그들은 이 會談着手로 그들의 赤化意志가 鈍化될 것을 憂慮한 나머지 對話以前보다도 한층더 軍備增強을 서두름으로써 모처럼 이루어진 對話가 所得없이 果斷될 可能性마저 增大했다.

北韓側은 國土가 統一이 되면 離散家族問題는 自然 解消된다는 論理를 내세우면서 南韓內에 共產黨의 合法活動을 保障하기 위해 反共法과 保安法을 撤廢하는 것이 赤十字會談 妥決條件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우리側은 北韓의 對南赤化野慾이 反共法과 保安法을 必要로 하게 했기 때문에 우선 赤十字會談을 解決하여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 줌으로써 相互信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造成할 것을 提案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人道的 次元의 赤十字會談을 成事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順次的으로 南北間의 懸案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北韓共產主義者들과 세 次元의 對話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1972年 5月 2日 朴大統領은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을 北韓에 派遣하여 韓半島에서 解決되어야 할 南北韓의 懸案問題에 關해 北韓 突力者들과 談判케 하였다.

이 談判을 통해 李厚洛 部長은 北韓側과 韓半島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7個項의 原則을 誘導하는데 成功했다. 卽 統一을 自主, 平和, 民族의 團結로 成就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大小武力衝突을 抑制하기 위한 南北間의 直通電話가설, 赤十字會談支援, 南北關係改善을 促進할 實務機構로서 南北調節委員會를 設置하는데 合意했다.

이것은 韓半島의 現代史에서 가장 劃期的 事件이며 統一에 對한 希望의 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民族的 예지의 現實的 表現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合意를 基반으로 南北間에는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되고 이로서 赤十字會談과 함께 南北間에는 두개의 對話窓口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對話窓口를 政府의 이니시아티브에 의해 開設한 것은 그 意圖가 基本的으로는 南北間에 高潮되고 있는 緊張을 緩和함으로써 周邊情勢變化로 造成되고 있는 統一에 對한 希望의 危機를 克服함과 同時에 北韓側의 武力에 의한 對南赤化企圖의 拋棄를 誘導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70年代에 대치한 政府의 統一努力은 南北關係를 對決에서 對話의 關係로 轉換시킴으로써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는 一方 北韓을 平和的 現狀變更의 論理에 適應하도록 誘導하는 一聯의 劃期的 措置로 집약되는 것이다.

問題 4. 南北對話와 維新體制

政府의 主導下에 韓半島의 南北關係를 對話의 關係로 轉換시킨 選擇과 決斷은 두가지 面에서 劃期的 意義를 지닌다.

하나는 祖國의 統一이 非武力的 方法으로 成就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分斷된 條件下에서 記錄해 오든 歷史의 構造를 轉換시켰다는 點이다.

現在 南北間에 열린 對話가 5千萬同胞의 念願으로서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시킬 것인지는 速斷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열린 對話는 北韓이 武力 赤化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繼續的인 武力赤化企圖에도 不拘하고 그 企圖를 抑制하여 平和統一의 方向으로 北韓體制를 變換하기 위한 選擇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對話에 依하여 分明히 變化된 것은 우리가 기록해 오든 歷史의 構造가 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歷史는 休戰線以南에서 展開되는 事件을 記錄하는 一種의 限地史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南北間에 對話가 열림으로써 이제부터 우리가 記錄하는 歷史의 內容가운데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에서 發生하는 모든 事件을 갈무리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限地史는 民族史의 次元으로 高揚된 것이다.

이같은 歷史構造의 變化는 어느 경우에도 새로운 歷史構造에 부합하는 體制의 創造가 要求되고 나아가 새로운 體制의 要求에 부합되는 行態의 形成이 要求되는 것이다. 南北對話以前의 우리體制는 우리의 體制維持에 미치는 北韓의 影響을 거의 考慮하지 않았

다. 그러나 南北對話로 因하여 지금까지 南北間의 思想的 對決은 概念的 次元에서 現實的 次元으로 轉換되고 陰性的 政治對決은 陽性化되고 社會文化分野의 抽象的 對決은 具體的 現實的 對決로 轉換되었다. 外交面에 있어서도 南北關係는 外交的 自由競爭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戰爭一步前의 軍事的 對決만 潛在化된 條件下에서 發生한 이같은 對決의 現實化에 對處할 體制를 우리는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北韓이 南北對話에 應해 온 底意는 非武力的 方法으로 南韓內의 諸般矛盾을 開發하여 南韓內部에서 人民의 革命이 일어나 現執權層을 破壞시키고 그들에 國調할 政治勢力에게 執權의 機會를 提供하여 새로운 政權과의 合作을 통하여 南韓을 赤化할 可能性이 있는가를 打診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 同調할 政治勢力이 出現치 않더라도 韓國民들의 反共意識을 中性化 내지 鈍化시켜 對共警戒態勢를 이완시킴으로써 間接侵略의 基盤을 強化해보려는 底意도 含蓄되어 있다. 그들은 또 南北對話를 利用하여 統一과 對話에 관한 南韓內部的 與論을 分裂 對立시키는 一方 對外的으로는 그들의 地位伸張을 戒할 수도 있으며 對話過程에서 韓國內部的 防衛態勢가 해이해질 경우 準備된 軍事力으로 奇襲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이같은 危險要素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의하여 效果的으로 排除하지 않는限 南北間에 對話를 開設한 目的이 破壞될 수 있는 것이다. 共產側이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그들에 同調하는 人民革命을 誘發할 경우 이 사태는 當該地域의 國民들이 막지 못하는

限 美國의 援助로도 막을수 없다는 것이 越南戰의 教訓인 것이다.

南北對話와 關聯된 體制上的 問題로서 우리가 또한가지 注目해야 할 것은 우리의 憲法構造이다. 第三共和國의 憲法은 周知되는 바이지만 南北對話를 前提하지 않은 冷戰型的 收復統一型的 憲法이었으며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意識하지 않은 原子論的 個人的 自由保障을 目標로 하는 西歐型的 国力分立 憲法構造였다. 第三共和國 憲法附則 8條에는 收復條項이 明文化되어 있고 모든 形態의 國論分裂, 国力分散도 西歐的 意味의 個人自由的 保護라는 名分下에 正當化될 수 있는 法條項으로 充滿해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法律制度를 그대로 溫存시킨 가운데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것은 對內的으로는 數많은 矛盾을 들어내지 않을 수 없고 이같은 矛盾에 起因하는 國論分裂과 国力分散은 共產主義者들과의 對話에서 우리의 立場을 繼續해서 守勢에 빠지게 하는 要素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制度上的 問題에 關聯해서 決코 看過해서는 안될 事實은 南北對話로 인해 南北間에는 韓半島의 平和統一에 관한 領導力 競爭이 現象化되었다는 것이다. 이 競爭은 한마디로 南北韓의 어느 領導力이 5千단 同胞의 統一意志를 代表하고 있는가를 평가받는 領導力의 正統性에 관한 競爭인 것이다.

北韓에서의 金日成의 存在는 마치 神과 같이 偶像化되어 있는 수많은 歷史歪曲을 통하여 民族的 英雄으로 승화되어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과 體制가 다르기 때문에 特定個人을 偶像化할 必要도 없고 또한 해서도 안된다. 民主主義의 本質的 價值는 權力의 神格化나 私有化가 아닌 人格化에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기간에 실시된 여러차례의 大統領
選舉課程에서 國論이 極甚하게 分裂되는 것을 목격했고 근소한 差
異도 落選한 候補는 選舉過程에 不正이 있었으리라는 假定하에 자
己를 精神的 大統領이라고 定義하기도 했고 또 어떤 候補는 北韓
의 主張에 同調하는 公約을 내세워 國民意識을 誤導하기도 한다.

萬一 南北間에 對話가 열린 現時點에서 이같은 選舉制度가 존속
된다면 對話의 成果가 不振할 경우 그 責任을 共產側이 아닌 現
在의 執權者에게 轉嫁하는 偏動이 可能할 수도 있고 南北對話를
北韓의 提議를 받아들임으로써 成事시키자는 主張을 내세워 國民多
數의 支持를 모을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指導者選出方法은 現在의 國民의 政治意識水準에
비추어 우리側이 主導한 南北對話를 成功的으로 進行시키는 것을
放害할 憂慮가 있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南
北對話를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우리 體制內에 포함된 이
같은 逆機能要素를 排除하는 決斷과 勇氣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같은 體制改革은 安易한 討論이나 漸進的 方法으로는
이루어 질수없다. 民主社會에서의 改革은 언제나 低抗과 反作用이
따르며 低抗이 擴大될 경우 內亂으로 發展할 수
있다. 南北間에 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이갈
은 反作用도 最少化되어야 한다. 南北對話가 70年代의 內外情勢속
에서 統一에 對한 民族的 希望을 가질 수있는 必然的 選擇이라면
이를 뒷받침 할수있는 體制의 改革整備도 必然的인 것이다.

1972年 10月 17日에 斷行된 十月維新은 바로 이같은 問題意識

即 南北對話에서 提起된 緊急한 國內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결단인 것이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는 收復統一型의 憲法規程을 平和統一型으로, 非能率과 不条理의 國力分散型의 憲法構造를 能率提高와 國力の 組織化를 기할 수 있는 構造로 轉換시킴으로써 北韓이 우리의 民主制度를 惡用하여 國論을 分裂시키고 人民蜂起를 誘導할 制度的 障礙를 除去하였다. 同時에 우리는 維新作業을 통하여 南北對話期에 직접한 지도자 選출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선거에 수반하는 不条理, 非能率, 極端의 國論分裂可能性을 排除하고 安定된 土台위에서 南北對話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造成했다. 즉 5千萬 同胞의 統一意志를 主權化하며 統一主体國民會議를 構成하고 이 機構를 主權의 最高受任機關으로 하여 大統領을 選出케 했다. 이같은 選出은 南北對話期의 우리의 大統領職이 단순히 分斷된 國家의 行政首班에 그치지 않고 5千萬 同胞의 平和統一意志를 代表하여 統一事業을 推進하는 求心點이 된다는 것을 制度的으로 論證하는 것이다. 分斷된 國家에서는 統一意志의 代辨이 正統性의 基礎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制度를 案出함으로써 우리의 大統領職에 民族史的 正統性을 賦與하게 되었다.

十月維新은 바로 이같은 論理에서 推進되었고 이제 그 一次年度의 下半에 들어섰다. 國民中에는 이같은 維新이 民主主義的 自由의 制約으로 曲解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維新이 制約하는 것은 우리 體制維持의 基本이 되는 民主主義의 本質的 價值가 아니다.

維新이 制約하는 것은 國力培養을 沮害하는 浪費와 非能率이며

南北對話期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國論分裂의 可能要素이다. 이같은 制約을 통해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의 直間接 侵略을 防止하게 됨은 勿論 共產主義者들이 우리의 體制를 人民革命이나 武力侵略의 可能地域으로 誤算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의 赤化野慾을 拋棄케 誘導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維新作業의 必然性이 있고 또한 現實的 當爲性이 있는 것이다.

問題 5.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論理

政府는 1970年 8.15 宣言을 起點으로 統一을 平和的으로 達成하려는 努力만이 現在의 南北韓關係와 國際情勢에 비추어 現實性과 妥當性이 保障된다고 判斷하고 이를 爲한 措置로서 南北間에 對話를 開設했다. 그러나 이같은 措置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韓半島에서 高潮되어 온 緊張의 主原因인 北韓側의 對南赤化企圖가 拋棄되었다는 實証에서 取해진 것이 아니라 赤化企圖의 拋棄를 誘導하기 위한 選擇이었다. 그때문에 南北對話가 열렸다고 해서 韓半島의 懸案 問題가 모두 쉽사리 對話로서 解決되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는 南北合意에 의하여 開設되었지만 이 窓口를 통한 對話는 예견했던대로 成果있게 進行되지 못하였다. 赤十字會談은 一年間의 予備會談끝에 議題 다섯가지를 確定 짓고 本會談을 開催했으나 北韓側이 會談進行의 先決條件으로서 南

韓에서의 共産黨 活動을 合法化해야 한다는 強奪的 要求를 提起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 調節委員會 會談에서도 우리 側은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解決하기 용이한 問題부터 순차적으로 解決해 나가고 이 過程에서 相互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고 적대감정을 완화하며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해 나가는 가운데 점차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자는 漸進的, 段階的 解決을 提案한데 反하여 北韓側은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軍事, 政治問題의 優先解決을 主張하여 對話進行에 難關을 造成했다.

周知되는 바이지만 韓半島의 懸案問題는 南北韓의 어느 一方이 他方을 軍事的으로 征服하지 않는 限 對話를 통해 解決을 試圖할 때는 解決하기 용이한 問題부터 取扱하는 것이 事物의 理致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 民族이 現在 願하지 않는 國土 分斷으로 격고있는 苦痛과 不便은 그 수를 헤아릴 수없이 많다. 이 고통과 불편을 對話를 통해 解消시키고 輕減시켜 마침내 모든 形態의 고통이 完全히 除去되는 狀態가 곧 5천만이 바라는 平和的 統一成就의 狀態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對話를 통해 解決해야 할 苦痛과 불편중에는 南北當事者間의 努力에 의하여 즉각 解決하기 용이한 事項이 있는 가 하면 當場 解決은 되지 않더라도 얼마간의 時間을 경과하면 解決이 기대되는 問題도 있고 또 周辺 強大國의 協力없이는 南北 當事者만의 對話로는 解決하기 힘든 問題도 있다. 赤十字會談에서 提起되고 있는 離散家族의 生死所在 確認은 當事者들이 誠意만 表示한다면 쉽게 解決될 수있는 問題이며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相互

간의 戰略的 考慮, 經濟概念의 差異때문에 當場에 實現될 수는 힘들어도 이를 實現키 위해 努力하면 当事者關係에서 解決될 수있는 問題일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軍事情勢를 變更시키는 이른바 安保 軍事問題는 그 性格上 南北当事者間의 對話만으로는 解決될 수없는 問題이다. 南北韓은 各己 相互間의 安全保障을 위해 軍事同盟條約, 軍事援助協定을 締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條約이나 協定은 南北韓만의 利益을 위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韓半島의 戰略的 位置를 考慮한 強大國의 利益을 實現하기 위해 締結된 것이다. 좀더 부연한다면 韓半島에서 造成되고 있는 緊張이 戰爭으로 發展하는 것을 抑制함으로써 強大國間의 共存關係를 維持하기 위한 方便으로도 條約은 締結될 수 있으며 強大國들의 아시아 政策實現을 위한 拠点 確保를 위해서도 重盟은 維持될 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軍事問題는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除去하는 努力中에서 맨마지막에 解決될 수있는 課題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苦痛과 不便中에서 当事者間에 解決될 모든 苦痛이 除去되고 이 기반위에서 南과 北이 相互信賴하여 戰爭이나 暴力이 統一手段이 아님을 相互間에 確信케 될때 비로서 南北共同의 努力으로 周邊強大國들과 協商하여 解決할 課題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解決하기 용이한 問題는 忌避하고 現時點에서 解結하기 힘든 軍事問題의 우선解決을 내 세운다. 이같은 態度는 北韓이 對話를 통해 統一의 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意圖가 없고 오히려 對話窓口를 利用하여 그들의 赤化統一의 基盤을 造成하자는데 있다는 底意가 있음을 立証하는 것이다. 反共法과 國

家保安法을 철폐하여 共産黨 活動을 合法化하고 國民들의 反共思想 武裝을 解除시키며 美軍을 철수시키고 國軍의 數를 줄여 國防安保 體制를 解体하자는 것이 北韓側의 主張일진데 우리는 이같은 非現實的, 強奪的 要求를 받아들일 수없음은 勿論 아무리 南北對話의 維持가 民族全體의 進路를 위해 所重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安保 體制를 무너뜨리는 값비싼 代價를 支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側은 왜 70年代의 情勢속에서 南北對話의 進전을 가로막는 이같은 主張을 해 오는 것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北韓體制의 本質的 屬性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北韓의 金日成과 그의 追從者들은 1945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祖國과 民族의 將來를 생각한 일이없다.

그들은 다만 마르크스·레닌主義를 韓半島 全域에 實現하기 위한 目的으로 組織된 國際共産黨의 韓半島 前衛政黨인 勞動黨의 立場과 將來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勞動黨의 規約前文은 「美帝國主義者들에게 強占된 兩朝鮮을 解放하고 獨占資本家들의 支配下에 있는 兩韓人民을 解放하여 韓半島 全域에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統一이요 解放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점진적으로 解決하자는 論理는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하거나 理解될 수없는 概念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第一段階 對話의 限界性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 限界性을 克服하고 南北對話를 促進시킬 수 있는 代案은 무엇일까. 이 代案을 模索하든중에 政府가 取한 새로운 決定이 바로

1973年6月23日에 發表된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다.

政府는 南北當事者間의 現時點에서의 對話만으로는 北韓의 對南赤化企圖의 포기를 誘導하기가 至難하다고 판단하고 現在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取하고 있는 立場과 論理가 現在의 内外情勢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爽感할 機會를 賦与함으로써 北韓의 武力赤化企圖 拋棄를 誘導키 위한 迂回戰略을 마련했다.

잘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北韓은 지난 4 반세기 동안 우리 政府의 對北封鎖政策에 얽매어 國際的으로는 孤立되고 對內的으로는 그들의 表現대로 철동성같은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들은 孤立된 條件下에서 外部世界와의 接觸과 協力을 단절한 가운데 武力에 의한 南韓赤化만을 存立의 唯一한 代案으로 삼고 살아왔다. 때문에 內部的으로는 恆常 緊張이 維持되었고 孤立된 條件속에서 體制維持에 必要한 擬集力을 確保키 위해 金日成을 偶像化하여 그를 信仰하는 宗門集團(communal association)으로 化하였다. 이같은 環境下에서 그들은 모든 經濟力을 軍需産業에 投入하였고 消費生活는 극도로 抑制되었다. 體制內部에서 惹起되는 不滿을 抑制하기 위해 모든 苦痛과 勞動이 「철벗고 굶주리는 南韓人民을 解放하고 美國의 強占하에 있는 南韓을 解放하기 위한 鬪스러운 解放鬪爭에 參加하는 것」이라고 糊塗하는 政治思想教育을 強化했다. 이 때문에 社會文化分野에서도 普遍的 文化價値를 追求하는 努力은 모두 忌避되었고 金日成 偶像化, 南韓解放을 고취하는 宣傳, 煽動의 文學, 藝術이 支配하였다. 이리하여 北韓은 다른 어느 共產國家에서도 그 例를 볼 수없는 教條主義的 兵營國家가 되고 말았다. 이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願하는 條件에서 南北對話에 應해 올 아무런 體制內的 要素를 갖지 못하고 있고 다만 敎條主義的 赤化戰術로만 南北對話에 臨하는 것이다.

이같은 狀況判斷에서 政府는 北韓이 外部世界와 接觸하고 또 外部世界에 開放되어 武力에 의한 南韓赤化以外的 方法으로도 그들의 體制維持가 可能할 수있도록 對北封鎖政策을 全面解除하는 決定을 내리게 되었다. 政府의 決斷은 비단 여기에 머물지 않고 南北韓이 國際機構와 유엔에도 같이 參加하여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으로 흐르는 世界潮流를 함께 呼號하자는 措置도 강구했다. 同時에 政府는 北韓以外的 다른 共產國家들에게도 門戶를 開放하면서 互惠平等의 立場에서 共存해 나갈 것을 提案했다.

우리는 이같은 開放化 政策을 통하여 北韓側으로 하여금 武力에 의한 現狀変更試圖가 國際社會의 要請에도 附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統一의 課題를 안고있는 韓半島의 將來를 위해서도 決코 有益할 수없다는 것을 突感케 함으로써 北韓의 武力赤化企圖의 포기를 새 次元에서 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政府는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도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取함으로써 이같은 開放化 政策을 한층더 現實化했다.

國民中에는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이 分斷의 永久化 또는 統一努力의 拋棄를 意味하는 것으로 誤解할 수있다. 法理論上 유엔加入은 國家에게만 許容되는 것이기 때문에 同時加入은 두個의 韓國으로 解釈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論을 提起한 것은 6.23 宣言에서도 分明히 밝혔듯이

南北關係를 國家對 國家關係로 定立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南北韓이 유엔에 各已 加入하여 유엔憲章이 定하고 있는 諸義務를 受諾함으로써 統一의 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南北關係를 定立하자는 것이다.

또 유엔 加入의 事例를 보면 北韓이 말하는 單一國號下의 유엔 加入이 반드시 政治統合을 促進하는 것도 아니고 各已 別個로 加入한다고 해서 必要的인 政治統合이 포기되는 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에집트와 시리아는 統一아랍共和國이라는 單一國號로 유엔에 加入했으나 內部事情의 變化로 다시금 個別的으로 會員國이 되었고 탕가니카와 잔지바르는 別個로 유엔에 加入했으나 內部利害關係의 調整으로 탄자니아라는 單一國號로 單一의 유엔 代表權 形成에 同意한바 있다. 이밖에도 이와 類似한 事例가 적지않다. 이렇게 볼때 유엔에의 加入問題와 統一問題는 전혀 別個의 것이며 南北韓이 同時에 加入한 후에라도 統一의 問題가 平和的으로 解決되면 韓半島에 대한 유엔 代表權이 單一化될 수 있는 것은 自明의 理致이다. 問題는 韓半島의 統一이 平和的으로 成就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6.23 宣言은 韓半島의 平和統一與件을 實質的으로 改善·創造하기 위한 가장 現實的이고 合理的 代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6.23 宣言의 受諾을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宣言의 受諾은 바꾸어 말하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圖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半島 統一의 代案이 平和的 現狀變更

의 試圖에 對해서만 肯定的 反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現時點에서 北韓側의 武力에 의한 赤化企圖가 繼續 有效할 수 있을지는 하나의 疑問이 아닐 수 없다.

問題 6. 統一에 관한 今後의 展望

政府가 70年代의 內外情勢評價를 토대로 祖國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기 위해 追求해 온 南北對話는 北韓側의 對南赤化野慾의 發露로 現在 停屯狀態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이 對話가 再開되어 成果적으로 進行되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이 그들의 赤化企圖를 偽裝한 諸般 強奪的 要求條件을 撤回하고 政府가 提議한

6.23 宣言의 精神에 立脚하여 南北關係를 定立하는데 同意해야 한다. 즉 서로 內政에 干涉치 않고 侵略하지 않는 南北關係 定立에 同意하고 이 基盤위에서 國土分斷에 기인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解決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態度로 南北對話에 임해봐야 한다.

現在 北韓은 이같은 政府의 勸告에 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政府의 現實的 平和統一政策을 分斷固定化政策이라 非難하고 그들의 赤化企圖에 呼應하는 者만을 對話의 相對로 맞이하겠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分명한 것은 北韓側의 要求를 받아들일 要素가 極東情勢속에서나 韓國의 內部態勢에 全無하다는 點이다. 中共은 北韓의 主張을 外交的으로는 支持하지만 北韓이 4 半세기 동안 撤收시킬 것을 要求해 온 韓國駐屯美軍에 관해서는 對美關係改善의

中共側要求條件에 包含시키지 않고 있다. 美蘇間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平和共存關係가 發展되고 있으나 北韓의 同盟國인 蘇聯은 駐韓美軍의 地位에 對해 挑戰하지 않고 있다.

北韓은 南韓內部에서 現政府에 挑戰하는 人民革命을 誘導하려고 해왔으나 成功될 可能性은 全無하다. 그들은 韓國內部에서 現在 들어나 있는 矛盾을 極大化하고 潛在된 矛盾을 開發하여 國論을 分裂하고 社會的 混亂을 惹起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維新作業을 통해 北韓側의 企圖는 未然에 封鎖되었고 앞으로 維新體制가 공고화되면 될수록 人民革命에 對한 그들의 꿈은 空虛해 질 것이다.

이 反面 6.23 宣言에 對한 우리 政府의 主張은 韓半島 情勢와 國際情勢를 바로 評價하는 多數의 有力한 國家들로 부터 支持받았으며 中共과 蘇聯 兩國까지도 正面으로 反對하지 않음으로써 默示적으로 肯定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北韓은 達成하고 싶은 目標과 達成할 수있는 目標을 區別할 수있는 體制內的 準備가 欠如되어 있다. 이反面 政府는 達成할 수 있는 目標과 達成하고 싶은 目標을 區別하고 對內外政策調整을 통해 이 目標間의 間隔을 좁히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現在 두가지 岐路에 서있다. 6.23 宣言을 受諾하든가 아니면 準備된 武裝力을 活用하여 殉教者的 最後를 마치든가 하는 択一의 岐路에 서있다. 우리는 北韓이 祖國의 平和統一이라는 民族的 目的을 위해 後者보다는 前者를 選択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政府도 그러한 方向으로 情勢를 誘導하고 있다.

II . 政府의 統一基本原則과 그 理論的 背景은 무엇인가?

1994年 12月 28日 星期三 1994年 12月 28日 星期三

問題 1. 現段階 祖国統一의 基本原則

가. 基本原則

大韓民國 政府는 1948年 8月 15日 政府樹立 이래 統一에 관한 全体 國民들의 所望을 統一成就의 基本原則으로 設定하고 이 原則의 實現이 保障될 統一成就를 위해 不斷히 努力해왔다. 祖国統一에 관한 國民들의 所望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집약될 수있다.

첫째 統一은 同族間의 戰爭이 아닌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統一이 아무리 緊急한 民族的 至上課題라고 하더라도 이를 成就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武力手段이 아닌 平和的 方法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國民들의 始源的 所望인 것이다. 国土分斷이 우리 民族에게 말 할 수 없이 많은 苦痛과 不幸을 초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고통과 不幸을 초래하게 될 戰爭수완에 호소하여 統一을 摸索할 수는 없는 것이다.

統一에 관한 우리 國民들의 두번째 所望은 祖国의 統一이 自主的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国土는 強大國 政治의 必要에서 分斷되었지만 国土의 統一은 窮極的 決斷과 責任下에서 成就되어야 할 課題인 것이다. 우리는 이 必要性을 強大國들의 韓半島에 대한 信託統治 反對運動에서 切感했고 大韓民國은 反託運動에서 다져진 國民의 自主獨立精神을 政府樹立의 精神的 支柱

로 삼았기 때문에 自主的 統一이야말로 가장 根幹的 統一原則인 것이다.

國民들이 원하는 통일에 관한 세 번째 所望은 統一이 民主的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들의 意思와 관계없거나 國民들의 意思가 無視되는 統一은 어느 것이나 國民들이 願하는 統一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은 모든 國民이 性別, 男女, 老幼, 出身 性분에 관계없이 自由로운 意思表示의 機會가 保障되는 公正한 選舉를 통해 民主的으로 成就되어야 하며 統一政府의 形態도 國民多數의 自由로운 選擇으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政府는 統一에 관한 國民들의 이같은 所望에 입각하여 統一實現의 基本原則을 平和·自主·民主的 原則에 두고 이 原則이 관철되고 保障될 수 있는 統一狀況의 造成·誘導에 統一努力을 集中하고 있다.

나. 統一努力의 回顧

政府樹立直前 우리는 韓國統一에 관한 國際聯合의 決議 即 「유엔 監視下의 南北韓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로서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이 建設되어야 하고 이 目的을 達成키 위해 韓國 統一 臨時委員會를 派遣한다」는 유엔 總會의 勸告를 受諾하였다. 유엔의 이 決議는 當時의 南北韓 關係에서 우리 國民들의 統一에 관한 基本原則을 實現·保障할 수 있는 公正한 方案이었다. 特히 이 方案은 韓半島의 五個年間の 信託統治를 決議했던 強大國들이

우리 民族의 拳族의 反託運動에 圧倒되어 그들의 託治構想을 拋棄하고 우리 問題의 公正한 解決을 위한 代案으로 提示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民族이 自主的 平和統一 推進過程에서 獲得한 첫 成果였다.

그러나 이 方案은 두 가지 理由에서 統一實現의 結果를 가져오지 못했다. 첫째 理由는 北韓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北韓은 当初 強大國들의 信託統治案에 反對하다가 蘇聯의 指令을 받고 態度를 豹變, 贊託으로 立場을 전환하여 民族障營을 分裂시킨 후 蘇聯軍 庇護下에 獨自으로 共產政權을 樹立하고 韓半島 全域에 共產主義를 強要하거나 共產化를 促進시킬 方案이 아니면 어느 것이나 이를 受諾치 않았다.

둘째 理由는 유엔이 北韓으로 하여금 總會의 決議를 받아들여도 록 強制할 能力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유엔 監視下의 全韓國自由總選舉는 實施되지 못하고 大韓民國地域內에서만 유엔決議에 부합하는 方法으로 選舉가 實施되고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었다.

大韓民國 政府樹立后 美國은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目的으로 南韓地域에 上陸했던 美軍을 철수시키고 韓國의 統一의 問題를 大韓民國 政府와 유엔決議로 파견된 유엔韓國臨時委員團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美軍撤収를 好機로 武力에 의해 全韓國을 共產化할 目的으로 1950年 6月 大量南侵을 加해왔다.

武力侵攻은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試圖를 拋棄하는 것이며

同時에 民主的 統一原則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蘇聯制 탱크와 飛行機, 武器를 얻어 그들 軍事顧問官의 指揮下에 侵略戰爭을 일으키는 것은 自主統一의 原則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우리의 統一基本原則이 實現될 수 없는 條件下에서 武力에 의해 共產主義를 強要받는 統一을 거부하기 위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北韓의 侵略을 告發했다. 이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유엔軍의 派韓을 決議하여 北韓의 南侵을 擊退시키고 共產側과의 休戰協商을 통하여 武力對決을 中止시켰다.

政府는 이 戰爭을 통하여 武力行使는 어느 경우에도 우리의 統一手段으로 採択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統一의 結果를 가져올 수도 없다는 現實的 敎訓을 얻었다. 그리고 이 戰爭때문에 韓半島는 平和와 安全의 問題에 관한 限 國際責任 地域으로 再定義되었고 이같은 背景에서 南北韓은 各々 東西冷戰의 相異한 陣營에 屬함으로써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軍事的으로 反目하고 對立하는 不和의 南北關係를 展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政府는 祖國의 統一이 民族의 至上課業이기 때문에 韓國 統一에 관한 1954年의 제네바會談이 失敗로 돌아간后에도 韓半島가 유엔의 勸告에 기초하여 「유엔監視下 南北韓의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를 實施하고 이 目的을 達成키 위해 새로이 설치된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이 韓半島에서 任務를 遂行하는 것」에 同意하고 北韓도 이에 呼應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從前의 立場을 계속 固守하고 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團의 韓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建設的 役割을 否認했다.

이로서 祖國의 統一問題는 전혀 解決의 展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4 반세기라는 세월을 허송했다.

다. 分斷 4 반세기의 새로운 問題點

50年代의 戰爭과 그에 뒤이은 不安定한 休戰속에서 兩北韓은 戰爭抑制를 위해 세워진 높은 軍事障壁을 사이에 두고 一切의 對話가 단절된 가운데 相互 異質化의 發展過程을 걸기 始作했다. 이民族의 過去史에 대한 評價의 基準이 달라지고 言語의 語法과 意味 驅使方法이 달라지고 集團生活의 目標과 價值基準이 變化되었다. 그기에다 統一에 관한 過程 및 目標모델마저 전혀 判異해졌고 經濟發展의 論理와 目的마저 區別되었다. 東西間의 體制差異가 韓半島의 單一民族內部에서 體制化된 것이다.

따라서 分斷이 4半世紀를 經過한 오늘에 와서는 設使 北韓이 韓國統一에 관한 유엔의 決議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5천만이 同意할 수 있는 統一成就가 疑問視되는 狀況이 조성되었다. 北韓이 유엔 決議를 受諾한다고 해서 南北을 가르는 體制差異가 解消될 수 없는 것이고 統一에서 要求되는 異質化가 克服될 수 없는 時點이 이르렀다. 바꾸어 말하면 平和·自主·民主의 統一에 관한 政府의 基本原則이 유엔의 統韓決議로서는 관철될 수 없는 時間과 空間이 生成된

것이다.

한편 國際情勢는 70年代에 접어들면서 東西間의 冷戰을 止揚하고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潮流를 胎動시켰다. 이 潮流는 韓半島를 둘러싼 極東의 國際關係를 4 大國間의 共存關係 發展을 目標로 勢力均衡을 유지하는 方向으로 展開시키고 있다.

이러한 情勢는 極東의 國際關係에서 現狀變更要因으로 評價될 韓半島의 統一에 대해 否定的 분위기를 造成했다. 強大國들은 그들에게 有益한 極東情勢를 展開시키기 위해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에 関心を 갖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強大國關係의 需要에서 歐羅巴의 分斷國家인 獨逸은 分斷의 固定化로서 統一의 問題가 漸定的으로 處理되었다. 韓半島는 獨逸의 경우와는 달리 韓半島의 政治的 統一이 周邊國家들의 安全危脅要因으로 定義되지 않는 않기 때문에 分斷이 반드시 固定化되어야 한다는 強大國間의 明示的 合意는 없으나 韓半島의 統一이 武力對決로 추진될 경우에는 強大國들은 統一보다는 分斷固定化를 強要할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같은 環境은 北韓側이 挑發한 6.25動亂으로 韓半島의 平和回復과 安全維持問題가 周邊強大國들을 비롯한 國際社會의 関心과 反應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周邊情勢속에서 統一에 對한 希望보다는 希望을 상실당할 위기요소를 엿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不幸히도 南北關係는 70年代에 접어들면서 休戰期間을

利用한 北韓側의 武力增強으로 緊張은 한층더 高潮되었고 北韓의 南侵可能性 提高에 對備한 韓國의 總力安保態勢로 인하여 南北關係는 戰爭一步前의 緊迫한 情勢를 助成하였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政府는 統一에 관한 基本原則으로서의 平和·自主·民主의 原則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바로 여기에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새로운 선택이 必要하게 되었다.

라. 基本原則貫徹을 위한 새로운 努力

70年代의 危機情勢속에서 政府는 統一에 대한 우리 民族의 希望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現實的 方案으로서 政府의 統一에 관한 基本原則을 南北間의 合意를 통해 具現키로 決定하였다.

1970年 8月 15日 朴正熙 大統領은 다음과 같은 平和統一構想을 發表했다.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時急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課題라고 하더라도 同族相殘의 戰爭은 反對해야 한다.

② 北韓은 武装共匪의 南派등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即刻 中止하고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圖의 포기를 對外에 申明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証해야 한다.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受諾한다면 南北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단계적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現實的 方案을 提示할 餘의가 있다.

④ 北韓은 더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争, 즉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수있는 여건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경쟁에 나설 것을 戒의한다.

政府는 大統領閣下の 이같은 8.15宣言을 起點으로 해서 1971年 8月 12日에는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여 南北關係를 對決의 構造에서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키고 1972年 7月 4日에는 南北高位會談을 통해 平和·自主·民主統一이라는 統一에 관한 政府의 基本原則을 南北間의 合意로 文書化시키는데 成功했다.

그러나 이같은 原則合意가 南北間에 具體化되기 爲해서는 적잖은 難關이 놓여있다. 이 難關은 于先 韓半島에서 解決되어야 할 懸案問題의 特性에서 비롯된다. 平和統一은 一方에 의한 他方의 征服이나 一方의 原則을 他方に 強要하는 論理로는 實現될 수 없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十月維新을 통하여 憲法上의 收復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平和統一에 관한 政府의 立場을 制度化하고 現在의 世代가 成就할 수 있는 統一接近方案으로서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對話를 통해 解決하기 용이한 것부터 하나씩 살어나감으로써 모든 不便과 苦痛이 除去된 土台위에서 國民의 意思가 自由롭게 表現되는 선거를 통해 統一政府를 樹立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했다.

政府가 統一을 이같이 漸進的 段階的으로 成就할 方針을 세운

것은 다음과 같은 狀況判斷에 기인한다. 우선 現在의 南北韓은 理念과 體制가 相異하기 때문에 一擧에 政治的 統合을 期할 수 없고 統一을 向해 社會態度가 民族的 同質性 回復의 方向으로 收斂될 條件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間에는 50年代의 武力對決과 그에 뒤이은 不和의 계속으로 自主·平和·民主統一에 관한 原則合意가 具體化되기 위해서는 相互信賴의 回復과 敵對意識의 緩化가 必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即刻的인 政治的 單一化 作業에 先行하여 相互間의 交流가 成果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南北間에 解決해야 할 懸案問題의 在裕을 現實的 基礎 위에서 再評仙한데 起因한다. 周知되는바어지만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해결해야 할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苦痛과 不便은 그 數를 헤아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苦痛中에는 現在의 南北關係에 비추어 볼때 當事者間의 對話를 통해 即刻 解決되거나 輕減될 苦痛이 있는가 하면 當場 現實的 成果는 없으나 南北對話가 계속 進行되어 相互間에 信賴가·씩틈으로써 解決될 고통도 있다. 또 어떤 苦痛은 南北當事者間의 對話만으로는 解決될 수 없고 주변 強大國의 協力을 얻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다. 當事者間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離散家族의 生死所在을 確認하는 人道問題가 여기에 해당하며 當事者間의 對話에서 時間이 걸려야 解決될 苦痛은 經濟交流, 離散家族의 再結合 등의 課題일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軍事問題를 비롯한 政治的 課題는 이 問題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苦痛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南北當事者間의 對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韓半島 事態에 利害關係를 갖는 強大國들의

協력이 必需的 것이다. 이것은 北韓側의 6.25挑発로 韓半島가 平和와 安全에 關한限 國際責任地域으로 定義되어 온데 起因한다.

따라서 政府는 韓半島問題의 特性에 關한 이같은 評價에서 統一의 問題를 漸進的, 段階的으로 解決한다는 立場을 갖게 되었고 이 立場에서 國土分斷에서 초래되어온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하나씩 해결하기 용이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敵對意識의 緩化, 相互信賴분위기의 造成, 그리고 民族의 同質性回復을 期함으로써 平和的인 政治統合을 成就하는 現實的 方案을 定立했다.

그러나 不幸히도 北韓은 이같은 現實的 接近方法에 適應할 體制內的 準備를 갖지 못하였다. 모든 體制가 武力에 依한 對南赤化 아니면 分離獨立할 수 밖에 없도록 閉鎖된 硬直性 共產體制이기 때문에 南北對話도 그들의 赤化統一목적에 奉仕하지 않는限 이를 忌避할 수 밖에 없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政府는 지난 2年間의 南北對話經驗을 基礎로 하여 北韓側의 硬直性을 緩化할 環境助成을 爲하는 對話에 依한 統一接近이 困難하다고 判斷하고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을 發表하고 南北間에 지난 27年間 이루어진 歷史的 現實을 現實대로 認定하는 토대위에서 平和的으로 統一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하였다. 政府의 北韓에 대한 封鎖政策은 解除되고 北韓政權을 當爲(being)로서는 否認하나 存在(being)로서는 認定하는 現實的 立場을 취했다.

이 措置로서 政府는 北韓이 外部世界에 開放되고 또 外部情勢를

意識함으로써 武力에 의한 對南赤化企圖의 無謀性を 깨닫게 함과 同時에 政府의 漸進的 段階的 平和統一接近方案에 呼應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마. 現段階의 統一原則

政府의 統一에 관한 基本原則은 過去나 現在나 變함이 없이 平和·自主·民主統一에 있다. 이 原則에 입각해서 政府는 8.15 宣言을 發表하고 이를 發展시켜 7.4 南北共同聲明을 誘導했으며 이를 한층더 具體化 시키고 現實的 結果를 얻어내기 위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한 것이다.

이같은 措置는 平和·自主·民主統一이라는 基本原則 관철을 위한 代案이며 原則을 變更改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時點에서 우리는 統一을 阻害하는 要素를 하루빨리 除去하여 平和統一의 基盤을 조성하는 努力을 展開시켜야 하는바 朴大統領閣下께서 1970年부터 最近까지 平和統一을 誘導하기 위한 措置를 단행하는 가운데 定立한 現段階의 統一原則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民族의 至上念願으로서의 祖國統一은 반드시 平和的 方法에 의해 自主적으로 成就되어야 한다.

(2) 南北韓은 統一이 成就될때까지 過渡적으로 유엔에 同時加入함으로써 유엔憲章體制下에서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涉하지 않는 條件에서 統一을 成就할 南北關係를 定立한다.

(3) 祖國統一의 現實的 障礙要因인 南北間의 體制差異는 民族史

的 正統性에 立脚해서 克服되어야 하며 이를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相互理解와 信賴의 發展을 넓혀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해야 하는바 南北對話를 積極推進함으로써 서로의 社會를 서로에게 開放하는 南北關係를 展開해야 한다.

(4) 南北間에 가로놓여 있는 諸般問題를 成功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해결하기 용이한 문제부터 始作하여 漸次 어려운 問題의 해결을 指向하는 段階的이며 漸進的 努力을 경주한다.

(5) 祖國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을 助成하기 위해 우리는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도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門戶를 開放한다.

以上の 5개 原則은 70年代의 內外情勢에 對한 客觀的 評價와 韓半島에서 解決되어야 할 統一問題의 特徵을 바로 認識하고 이를 뒷받침할 多方面的 統合理論의 成果에 底礎되어 있다.

다시 이 原則에 의한 統一의 實現은 北韓側이 이 原則의 真意를 터득하는 時期와 合手關係에 있으며 北韓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統一된 祖國의 榮光에 參與하거나 거부함으로써 民族의 利益을 外面하는 孤立의 길을 가거나 兩者中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問題 2. 現在 政府가 平和統一接近方案으로 推進하고 있는 南北對話의 理論的 背景

가. 平和統一의 中長期 構想

第二次 世界大戰以後 東西世界の 이데올로기의 分極化 過程에서 國土가 兩斷된 分斷國으로서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이룩하는데 成功한 國家는 하나도 없다. 東西間에 冷戰이 激化하던 時期에는 武力이 統一手段 乃至 領土併合의 手段으로 登場하긴 했지만 東西間의 冷戰的 對決關係에서 武力行使를 통해 統一을 成就하거나 한치의 領土도 더 넓히는데 成功한 事例가 없다.

1950年代의 6.25動亂은 北韓側이 武力에 의하여 韓半島 全域을 共產化 統一하기 위해 挑發한 戰爭이었다. 그러나 共產側의 이같은 企圖는 유엔 旗幟下에 勸진 自由陣營의 參戰으로 沮止되었고 國軍과 유엔軍이 38度線以北으로 反擊作戰을 擴大하여 統一의 展望이 보였으나 中共의 介入으로 目的을 達成치 못했다. 따라서 武力行使가 統一의 手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第二次 大戰以後의 東西關係가 展開되어온 力學의 論理에서 證明되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면 武力行使와 같은 軍事的 征服을 前提하지 않는 統一接近方法은 存在할 수 없을 것인가. 이設問은 바꾸어 말하면 平和的, 手段에 의한 統一은 可能할 것인가에 關한 設問이다. 이에 對한 回答은 共產主義者들에게서는 容易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들은

레닌의 平和共存理論, 毛沢東의 人民革命理論의 戰略戰術化에 의하여 平和的 方法으로 赤化統一이 可能하다고 主張할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民主陣營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敵對하고 있는 分斷國家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体系的 理論의 整備가 없고, 西歐 社會學者들이 抱括적으로 取扱한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 가운데도 自由·共產의 이데올로기가 對立하고 있는 分斷國들의 平和的인 政治統合의 問題는 取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東西間에 冷戰이 解氷되고 緊張緩化趨勢가 登場함에 따라 東西間에 造成되는 緊張緩化, 和解(détente) 그리고 協力の 論理를 分斷國의 平和的 政治統合의 課題에 代入시켜 보려는 理論的 試圖가 行해지기 시작했다. 1970年 9月 高麗大學校 아시아 問題研究所가 國土統一院의 後援으로 開催한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國際會議」에서 美國 콜럼비아 大學教授 즈비그뉴·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發表한 四段階 平和統一方案은 이같은 理論的 試圖의 代表的 例이다. 브르제진스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對立하고 있는 韓半島가 平和적으로 統合되기 위해서는 南北韓關係가 다음 4단계로 變遷될 수 있어야 한다고 展望했다. 즉 第一段階는 直接的 對決關係, 第二段階는 衝突과 競爭의 混合關係, 이 단계를 거쳐 第三段階는 制限된 協助關係, 맨마지막으로 第4 단계는 平凡한 協助關係인 바 적어도 南北韓이 現在의 不和와 體制差異에도 不拘하고 平和적으로 統合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四段階의 變遷을 거쳐야 한다고

主張했다.

東西關係의 解氷의 進化過程에서 推論된 이 理論은 그 成果가 實証되지 않은 하나의 假說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假說은 다음 세가지의 事實과 關聯하여 政府의 平和統一을 위한 中長期構想 設定의 理論的基礎로 活用될 수 있다. 첫째로 70年代의 韓半島 周邊情勢가 武力에 의한 韓半島의 現狀打破를 希望하지 않으며 萬一 統一을 위한 武力對決의 可能性이 증가된 경우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를 強要할 國際關係가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둘째는 유엔의 勸告에 기초한 韓半島의 平和統一可能性이 全無해졌다는 事實이다. 北韓이 유엔總會의 勸告를 거부하는 限 유엔의 統韓決議案은 實効를 건울 수 없는 것이며 設使 北韓이 유엔의 勸告를 受諾한다고 해도 南北韓이 50年代의 動亂이래 休戰線을 中心으로 높은 軍事障壁을 쌓은 가운데 4 반세기 동안 相互異質化의 過程을 걸어 왔기 때문에 南北間에 가로놓인 이같은 體制上의 差異가 土着人口比例에 기초한 自由總選舉만 實施하면 奇蹟같이 解消될 수 있다는 것이 証明되지 않는 限 平和的인 政治統攝의 結果를 가져온다고 期待할 수 없는 時点과 狀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셋째는 政府가 以上 두가지 判斷에 비추어 韓半島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기 위해 南北間의 相互武力行使拋棄를 提案하는 8.15宣言을 發表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政府는 이같은 段階說을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關係 展開의 가능한 論理로 判斷하고 이에 立脚하여 南北關係 展開의 四段

階 構想을 定立했다. 卽 第一段階는 體制對立關係로서 50年代와 60年代의 南北關係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第二段階는 南北間의 衝突과 競爭이 混合되는 關係로서 現時點의 南北韓關係를 予想했으며, 第三段階는 體制交流關係로서 南北間에 對話가 열리고 共榮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짐으로써 諸般分野의 交流가 從進되어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이 輕減되는 時期로 보았으며, 第四段階는 體制融合關係로서 南北間의 分野別 協力과 交流가 增進되고 南北間에 異質的 要素가 縮小되는 反面 民族的 同質性의 영역이 擴大됨으로써 南北이 平和的으로 統合될 關係가 整備되는 段階로 보았다. 結局 統一은 이 第四段階以後에 解決될 것으로 展望했다. 그리고 南北關係 變遷의 諸段階는 狀況要素를 中心으로 可變性을 지니기 때문에 將來에 關한 限 具體的 時期判斷은 留保했다.

그러나 이 長期構想에서 問題되는 것은 現在의 南北韓關係가 이 構想에서 予則한대로 展開될 수 있으며 또 展開시킬 수 있다고 前提할때 南과 北을 根本的으로 區別지우는 體制의 差異가 해소될 수 있는가의 問題이다. 萬一 이것이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 可能한것으로 證明되지 못하는 限 브르레진스키의 假說을 토대로 한 長期構想은 一種의 希望論的 見解 아니면 理論的 直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 長期構想의 妥當性 檢討

1970年 8.15宣言을 계기로 政府가 樹立한 平和統一의 中 長期構想은 그 基本的 前提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南北韓 어느

側의 一方的 課業일 수 없고 双務的, 相對的 課業이며 따라서 統一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하자는데 南北間의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두고 있다. 그러므로 長期構想이 具體化되기 위해서는 南北間에 對話를 열고 이 對話를 통해 緊張을 緩和시키는 一方 平和統一을 위한 相互協力の 영역을 開發할 수 있어야 한다.

政府는 이같은 必要性에서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를 통해 南北韓離散家族찾기運動을 提議케 하여 南北關係를 對話의 關係로 전환시키고 뒤이어 1972年 7月 4日에는 南北共同聲明을 誘導해 냄으로써 平和統一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로서 南北關係는 第二段階의 衝突과 競爭의 混合關係에서 第三段階인 體制交流 段階로 跳躍할 더듬들을 얻게 되었다.

政府가 취한 이같은 措置는 現在 南北對話가 교착狀態에 빠져있다는 事實에 비추어 即刻的 効用性이 客觀的 現實로는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지만 東西關係를 包含한 集團間의 競技理論(game theory)과 機能主義의 理論(functionalism)에 비추어 보면 그 妥當性이 論證된다.

(1) 競技理論의 檢證

南北間의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킨 措置가 南北間에 高潮되고 있는 緊張緩和에 寄與할 수 있는가를 檢證하는 것이 當面한 理論的 課題이다.

美國의 國際政治學者 칼·도위치(Karl Deutsch)는 그의 이른바 決裂制御效果(Lock in Effect)論에 의하여 이같은 可能性을 論

証하고 있다. (註1)

도위치教授는 그의 國際政治의 分析(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아나톨·라포포트(Anatol Rapoport)의 競技理論에 관한 實驗的 研究를 紹介하면서 두개의 敵對하는 集團間에 一但 對話가 開設되면 兩者間의 軍事的 緊張狀態는 潛在化하는 反面 한번 열린 對話는 成果와 관계없이 決裂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一種의 決裂制御效果를 示顯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것은 치킨·게임(chicken game)에 있어서 두 플레이어(player)가 서로 約束動作을 취할 수 있을 경우 「兩 플레이어 들이 모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동시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協同을 하는 경우」와 비슷하며 또한 罪囚의 딜렘마(prisoner's dilemma)에서 「罪囚 침묵을 지켜 아무 報償金品이 없이 自由만을 獲得하는」例와도 類似하다. (註2)

따라서 敵對集團間에 열린 對話는 비록 戰略目標가 相異하더라도 相互間의 對話需要때문에 決裂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며 이로 因하여 兩者間에는 軍事的 緊張의 強度가 下降하게 된다. 특히 對話의 初期段階에는 變節보다는 協同하는 選擇이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緊張緩和의 效果는 더 高潮되고 個人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註1) Karl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entice Hall, L.C. 1972. 李永祿譯; 國際政治의 分析, 法文社 서울 1973, pp. 200-201

(註2) 李容弼, 現代戰略論, 法文社, 서울, 1964, pp. 71 - 73

對話를 통한 約束動作에 의한 協同効果는 7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註3)

이같은 分析이 國家間的 關係에도 그대로 適用된다는 保障은 없다. 그러나 國家間的 關係라 하더라도 緊張緩和가 選好되는 분위기속에서는 한번 열린 對話는 前述한 決裂制御効果의 影響으로 決裂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蓋然性(probability)이 적지않다. 왜냐하면 對話의 決裂은 問題解決手段으로서의 對話의 機能停止를 意味하기 때문에 對話로서 潛在化된 軍事的 緊張이 戰爭一步前的 關係로 惡化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열린 對話가 결렬되면 兩者間的 關係에서 解決되어야 할 懸案問題의 解決手段中에서 武力行使만이 唯一의 代案으로 부각될 것이며 따라서 雙方間에는 軍事的 緊張이 對話以前보다 한층더 첨예화 할 것이다. 이 경우 對話를 試圖했던 兩側은 對話開始以前에 도달했던 緊張維持負擔보다 한층더 加重된 負擔, 즉 武力對決에서 勝利를 確保해야 할 負擔을 確保해야 할 狀況에 놓이게 된다.

兩行爲者 關係에서 對話不在期에 兩者間的 對立이 武力對決로 發展하지 않고 不安定한 均衡이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은 兩側에서 總力을 기울여 勳員한 緊張維持能力이 保合勢를 維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對話가 열리고 相互間的 協同이 助成되면 緊張維持負擔은 그만큼 줄어드나 다시금 變節이나 背信등으로 인해 對話가 결렬되

(註3) Karl Deutsch. Ibid, P, 198

면 緊張이 對話以前보다 增加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增加된 緊張에 適応키 위해 兩側은 새로운 負擔을 맡아야 하는바 兩側은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없이는 먼저 必要한 費用을 調達할 수 없다. 그러나 緊張助成 또는 武力對決이 強大 國關係에서 抑制되는 情勢下에서는 어느 側도 外部로부터 軍事支援을 얻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또 얻을 수 없다는 事實을 当事者들도 看取하게 된다.

따라서 当事者들은 이같이 負擔增加의 結果할 事態의 發生을 회피하려는 選擇에 關心을 갖게 되고 바로 이같은 選擇慾望에 의해서 일단 열린 對話는 成果와 關係없이 계속 유지되는 效果를 創造하는 것으로 推論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을 段階的으로 進化시키기 위한 基本措置로서 南北間에 對話를 開設한 選擇은 理論적으로 그 妥當性이 證明되는 것이다.

즉 對話가 完全히 決裂되지 않는 가운데 緊張의 緩和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現在의 南北關係는 北韓側이 強奪的 要求를 提起하면서 對話를 기피함으로써 一時 中斷된 狀態이나 對話에 관한 關心을 서로 拋棄치는 않았기 때문에 完全 決裂된 것으로 定義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對話의 效果는 現實的인 面에서도 그 妥當性이 完全 否認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機能主義에 의한 檢討

南北間에 對話를 開設한 措置는 앞서의 競技理論의 分析을 통해 밝혀진바와 같이 Lock in Effect에 의하여 對話의 決裂이 抑制되는 가운데 緊張을 緩和시키는 效果가 있다는 것이 論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選択이 長期構想의 實用性을 證明하기 위해서는 對話를 통해 體制間의 根本的 차이에도 불구하고 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이같은 協力を 통해 國土分斷에 기인하는 民族의 苦痛과 不便을 輕減시킬 수 있다는 期待도 充足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必要한 理論的 證明은 對話不在期에 상상할 수 없었던 南北間의 協力이 對話開始로 可能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現在 알려져 있는 東西間의 體制協力에 관한 理論은 데이비드·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定說화된 機能主義(Functionalism)의 理論이다.

미트라니에 의하면 東西間에 體制의 理念이 다르지만 그 體制가 代表하는 이데올로기와 密接히 關聯되지 않는 機能間에는 對話를 통해 協力이 可能하다고 한다. 이 見解에 의하면 모든 社會는 多樣的 機能이 統合되어 있으며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機能 가운데는 이데올로기적 特性을 強力히 反映하는 機能이 있는가 하면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人間이 生活하는데 必要한 機能도 있고 相對적으로 이데올로기의 影響이 적은 機能도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論의 根本的 假說을 人間存在의 合理性에 두고 人間은 本質적으로 鬪爭과 對立보다는 調和와 和平(harmony over conflicts)을 希求한다고 前提한다. 그리고 人間間의 紛爭은 그 根本原因이 社會的·經濟的 問題에 있으며 따라서 國際的 緊張이 緩化되기 위해서는 社會·經濟分野의 協力を 통해 貧困을 一掃하고 文盲과 疾病을 克服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니스·크로드(Inis Claude) 같은 國際機構學者는 미트라니의 機能主義가 立脚하고 있는 假說이 普遍的일수 없다면 人間行動은 合理的 動機와 非合理的 動機에 다같이 影響을 받으며 國際的 紛爭도 그 原因이 비단 社會·經濟的 問題에만 있지 않다고 批判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機能主義에서 區別하는 政治問題와 非政治問題가 分離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萬一分離가 可能하더라도 非政治問題에 앞서 政治問題 解決에 더 큰 關心이 있을 것이라고 批判했다.

크로드教授의 이같은 批判에도 不拘하고 機能主義에 관한 研究는 現在 日益 活潑히 展開되고 있으며 미트라니 教授의 相異한 體制間의 非政治分野의 協力理論을 한층더 發展시켜 이를 社會統合의 理論으로 昇華시키는 新機能主義(Neo functionalism)가 어네스트·하스(Ernest B. Haas) 등에 의해 대두하고 있다. (註5)

(註5) E. B. Haas, Jr., Beyond the Nation 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Univ. Press 1964.

그러나 機能主義에 의한 體制統合은 現在까지 그 成果가 同種 社會間的 統合運動으로서의 歐洲共同体등으로 具體化되고 있으나 相異한 體制間的 統合可能性을 實証치는 못하고 있다. 또한 相異한 體制間的 非政治分野의 協力は 國際電氣通信聯合 (ITU)에서 成果가 具體化되고 있으나 이 協力の 波及效果가 相異한 體制間的 政治統合에 까지 이르러라는 論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機能主義는 南北赤十字會談을 起點으로 始作된 南北對話를 토대로 南北間的 懸案問題를 解決하기 용이한 것부터 漸次 어려운 問題로 풀어나가면서 분단에 기인하는 고통과 불편을 경감시키자는 政府의 段階的 統一接近方案의 理論的基礎가 된다.

특히 政府가 해결하기 용이할 問題의 領域을 南北調節委員會會談에서 經濟·社會文化 分野로 定義하고 이 分野의 南北協力を 促進, 分斷狀態를 改善키 위해 社會開放 15項의 交流를 提議한 조치는 機能主義에서 實証된바 理論的 妥當性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에서 展望하는 南北間的 體制融合이 機能主義的 接近만으로 實現되리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 現段階의 南北關係처럼 體制守護를 위한 戰略이 相衝하고 또 國際政治的 要因으로 인해 南北當事者間的 對話를 통해 解決possible한 問題域과 解決하기 困難한 問題域이 分割되어 있는 狀況에서는 機能主義에 의한 南北協力 및 統合에는 限界性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機能主義는 平和統一長期構想의 第二段階로부터 第三段階로의 進化可能性

에 대한 理論的 基礎가 되고 實踐的 指針이 될수 있으나 第4段 階의 體制融合에 의한 南北間의 政治統合의 可能性을 立証키 위해서는 새로운 理論的 根拠가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3) 收歛理論과 統一展望

平和統一長期構想의 第4段階인 南北間의 體制融合이 窮極的인 南北政治統合의 先決條件으로서 成就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적잖은 懷疑가 있다. 世界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分裂된 이후 아직 理念의 差異를 넘어서서 統合에 成功한 事例가 全無하기 때문이다. 東西兩大陣營間에 核武器가 發達됨에 따라 理念差에 起因하는 國際緊張은 漸次 平和共存의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으나 共存이 理念差異를 克服하는 統合으로 發展하리라는 展望은 결코 밝지않다.

第二次 大戰以後 東西世界의 이데올로기의 分極化 過程에서 国土가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가 當面하는 가장 큰 難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南北間에 열린 對話가 機能分野에서 協力を 促進시킬 수 있다고 前提하더라도 이러한 協력이 果然 體制差異, 理念差異에서 發源하는 모든 갈등과 緊張을 克服하여 단순한 共存이 아닌 窮極的 統合으로 發展할것인지를 明確히 論証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作業이 아니다.

그러나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이 하나의 希望論的 見解의 體系化가 아니고 實踐的 統一構想이 되기 위해서는 南北赤十字會談을 제기로

열린 南北對話가 단순히 南北間의 軍事的 緊張을 緩和시켜 機能分
野別 協力を 成就하는데 그치지 않고 窮極적으로 南北을 하나의
秩序에도 統合시킬 수 있다는 것을 論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經驗의 世界에서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相異한 体制의 統
합이 具體化(materialization)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經驗的 模型을 提示하는 理論的 根拠는 밝힐 수 없고 다만 未來
學的 觀點에서 可能的 理論的 展望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0年代 初半부터 하나의 假說로서 登場한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은 두가지 根拠에서 機能主義의 限界性を 克服하고
平和的 体制統合의 可能性을 예견케 해준다.

于先 收斂理論家들은 現代의 産業社會(industrial society)를
分析의 場으로 設定하고 現代社會는 工業化(industrialization)
와 都市化(urbanization)에 의해서 오늘날 世界를 東西로
兩分시키는 이데올로기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漸次 類似性(simila-
rity)을 보이고 있다고 診斷하면서 結局 東西의 相異한 体制은
工業化와 都市化의 要求에 適應하는 過程에서 社會態度가 서로 類
似하게 收斂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한다. 同時에 이들은 오늘날 世
界各國은 發展段階는 다르지만 發展의 目標은 工業化되고 都市化된
産業社會의 形成에 두고 있기 때문에 世界의 窮極的인 相互收斂은
期待된다고 한다.

또한 收斂理論家들에 의하면 共產主義政黨은 그 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物質的 豊穡를 生産·供給·分配할 수 있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의 使命은 終了되고 다만 工業化의 要求에 副應하는 管理者의 役割을 맡게 될것이라고 展望하면서 그와 같은 實例로 自動車工業都市인 美國의 디트로이트(Detroit)市와 蘇聯의 스베들로브스크(Sverdlovsk)를 對照한다. (註6)

이 두 都市는 各各 理念과 體制가 根本적으로 다른 國家와 政府의 支配와 統制下에 있지만 다같이 自動車工業을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立脚하고 있는 體制와 理念의 差異에 관계없이 高度로 類似한 管理體制를 들어내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類似性은 처음에는 產業構造나 管理體制같은 下部構造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遍化될 경우 下部構造의 上部構造로서의 政治形態에서도 相互類似性을 向한 收斂化的 變化가 일어날 것으로 予測한다. 이같은 政治體制상의 類似性을 向한 變化의 現實化는 體制差異에 起因하는 統合의 가장 根本的 難關을 除去하게 될 것이다.

이 理論的 假說을 南北韓關係에 代入시켜 보면 現在의 南北韓은 다같이 開發途上國(産業化의 程度에서 韓國이 앞서고 있지만)으로서 對話를 통한 協力の 追求에 理念差 및 實用性 評仙差에서 오는 制約이 결코 적지 않지만 앞으로 南北共히 工業化와 都市化의 程度를 한층 더 深化시키고 또 이 構造에 附合하는 엘리트 群과 리더쉽이 形成될 경우 지금 이 時點에서 協力에 對한 合意가 不可能하게 보이는 分野라도 얼마후에는 合意可能한 分野로

(註6)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 / USSR, The Viking Press, New York, 1968(4th edition)

再定義되리라는 希望이 예견된다. 그리고 南北韓이 現在와 같은 分斷된 條件하에서도 對話를 통해 緊張緩화와 制限된 協力을 追求해가면서 工業化를 中心으로 한 産業社會를 이룩한다면 이데올로기 보다는 合理化, 能率性을 重視하는 社會態度가 形成될 것이며 南北關係가 이 단계에 이르던 民族統一이라는 民族的 與望의 霧圍氣가 上昇하는 가운데 政治的 統合에 관한 合意形成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收斂理論의 假說은 南北對話의 最終結果를 明確히 예견할 수 없는 現時點에서 窮極의으로 平和統一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可能性을 論理的으로 뒷받침해 준다. 동시에 機能主義的 接近에서 制約要素로 想起되는 波及效果에 대한 회의도 克服케 해준다.

그러나 이 假說은 現在 政策의 實踐原理로서 그 妥當性이 證明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證明해야 할 課題이다.

다른 有効한 理論的 代案이 없는 條件下에서는 統合을 向한 南北韓의 收斂化的 變化를 創造해 가는 것이 統一接近努力일 것이다. 특히 南北關係처럼 暫定的이나 共存的 競爭이 불가피한 狀況下에서는 平和統一의 長期構想의 妥當性은 이 論理에 依存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註 7) 이를 위한 南北關係의 展開誘導가 平和統一의 與件助成일 것이다.

(註 7) H. Heimann, Demokratischer Sozialismus in Ost und west,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Heft B 18/73 (5.5, 1973)

Ⅲ. 南北對話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懸案問題는 무엇인가?

1. 1997年 1月 1日起 凡在 中国 境内 生产 的 货物 均 适用 本 法 规定 的 税率 和 征收 办法 。

問題 1 . 南北對話開設의 動機

가 . 分斷 27 年間의 南北間의 敵對關係 分斷 27 年間 南北韓은 相互 異質的인 理念과 政治體制下에서 約 100 萬에 達하는 同族의 人命을 앗아간 6.25 戰爭을 겪었고 , 또한 完全한 斷絶 속에서 한通의 書信往來도 없었던만큼 南北間의 政治的인 不利와 對立은 極限化 되었고 , 더우기 北韓共產主義者들은 繼續的인 武裝 「게릴라」와 間諜의 南派를 通하여 韓國의 社會秩序를 破壞함으로써 政府轉覆을 企圖해 왔다 . 이같이 南北關係는 一觸即發의 戰爭危險을 內包하여 對話와 接觸없이는 武力對決의 可能性은 增大하고 反面에 相異한 理念과 體制의 固定化로 因한 南北韓住民의 思考行態의 異質化 및 生活化가 憂慮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같이 同族相殺의 百演을 防止하고 統一의 可能性을 模索키 위하여 南北間의 接觸과 對話가 絶對 必要하였고 , 同時에 對決의 構造를 對話의 構造로 轉換 시킴으로써 南北間에 高潮되어 있는 緊張을 緩和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나 . 國際秩序의 變化에 適應

戰後 國際政治의 趨勢는 國際的 緊張緩和의 模索이라는 潮流 속에서 政治理念的인 定向에서 實利追求的인 定向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 美 . 蘇 兩極體制的 構造에서 多極體制的 構造로 變移해 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 그러나 國際關係 變化의 底辺에 흐르고 있는 것은 各國이 各마다 自己의 利益을 追求하고

있다는 事實과 또 이같은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眼目에서 考察해 볼때 國際平和主義的 立場을 취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길이라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國際環境에 對한 機敏한 適應과 對處가 없는 國家目標의 追求는 非現實的이며 孤立主義的이며 時代錯誤的임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國際環境에 對한 機敏한 對處없이 國家發展을 期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南北이 各各 緊張狀態의 持續을 固執할때 이는 國際緊張緩和 潮流에 逆行하는 것이며 韓半島에서 또다시 戰爭을 誘發할 수 있는 危險要因을 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南北間에 介在된 葛藤과 對立은 어디까지나 協商에 依한 方法으로 自主적으로 타결지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南北間에 對話의 通路가 開拓되어야 한다는 必要性이 提起된 것이다.

다. 國民의 念願實現의 現實的 對案

統一에 對한 國民의 輿論은 成長하여 가는데 反하여 6.25와 같은 同族相殘의 쓰라린 經驗이 생생한 近代 戰爭에 依한 統一方法은 想像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의 念願을 욕되게 함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南北對話는 우선 平和를 指向하는 새로운 國際秩序變化에 適應하고 同族相殘의 悲劇을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이며 同時에 平和적으로 統一될 앞날의 展望을 갖기 위해서도 마땅히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南北對話는 國民의 統一念願을 實現하기 위한 現實的인 代案인 것이다.

그러나 分斷 27年間 對南革命路線을 繼續 固執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극히 好戰的이고 教條主義的이고 閉鎖主義的인 北韓共產主義者가 對話의 相對일진대 南北對話에 對한 國內的 逆機能을 排除하고 對話支援體制의 構築은 무엇보다 至急한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1972年 10月 南北對話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위하여 平和統一指向 意志를 나타낸 維新憲法이 發効되었고 이를 起點으로 北韓當局의 허황된 人民革命戰略을 紛碎하고 南北競爭에서 優位를 確保하기 위한 國力の 組織化가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北韓當局이 金日成 唯一 思想에 依한 思想的 要塞化를 구축하며 北韓住民에게 이른바 「南朝鮮 解放精神」을 鼓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勞動黨의 對南事業部를 強化하고 對南要員 教育機關을 設置하고 統一을 위한 外廓團體로서 所謂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과 「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이미 設置하여 運營하는등 思想的으로나 體制的으로나 金日成을 頂點으로 南北接觸과 對話에 万般의 態勢를 갖추고 있다는 事實을 直視할때 民族의 死活을 左右할 南北對話에 對處할 수 있는 國民的 團合이 무엇보다 먼저 造成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다.

問題 2 . 南北赤十字會談의 進行狀況과 問題點

가 . 會談進行狀況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의 離散家族들이 겪고 있는 人間的 苦痛을 덜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 北韓赤十字會側이 이에 同意함으로써 同年 9月 20日 板門店에서 本會談 準備를 위한 豫備會談이 始作되었다. 南北赤十字會談 雙方代表들은 그 뒤 25차례의 豫備會談 全体會議(公開)와 16차례의 非公開 實務者會議를 가진 끝에 會談이 提起된지 滿1年이 되는 1972年 8月 11日의 第25次豫備會談을 마지막으로

① 本會談 議題로서는 南北間에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問題, 自由로운 訪問과 相繼을 實現하는 問題, 自由로운 書信往來를 實施하는 問題, 이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問題,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② 本會談은 서울과 平壤에서 輪番으로 開催하고

③ 第1次 本會談은 1972年 8月 30日부터 平壤에서, 그리고 第2次 本會談은 1972年 9月 13日부터 서울에서 開催하기로

④ 其他 本會談에 各各 7名의 代表를 參加시키고 自己側 代表團의 諮問에 응할 7名 以內의 諮問委員들을 同行시키는 등의 本會談 進行節次에 完全한 合意를 보고 豫備會談의 幕을 내렸다.

이리하여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서울에서 세차례, 平壤에서 네차례씩 開催되었고, 각기 7名의 代表와 7名의 諮問委員, 20名의 隨行

員, 25名의 報導障等 都合 59名씩의 人員이 各會談때마다 身辺에 아무런 위협을 받음이 없이 南北을 往來하였다. 南北赤十字會談은 72年 10月 平壤에서 열린 第3次 本會談에서 議題 第1項 「南北에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實踐에 옮기기 위한 方法과 節次에 관한 實質問題 討議에 着手하였다.

나. 雙方의 基本立場

議題 第1項의 實踐을 위한 節次問題 討議에 앞서 韓赤代表團은 討議의 原則으로서 다음 6個項을 提示했다.

① 이 事業은 어디까지나 赤十字가 主管하여야 하며, 雙方 赤十字社가 모든 責任을 지고 事業을 끝까지 完遂해야 한다.

② 이 事業에 있어서 赤十字의 本質을 尙해할 餘려가 있는 모든 要素는 一切 排摯되어야 한다.

③ 이 事業의 推進에는 當事者 各個人의 自由意思가 絶對 尊重되어야 한다.

④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當事者 各個人의 身上內容에 관한 秘密이 保障되어야 한다.

⑤ 雙方은 이 事業의 推進을 위한 合意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事業에 着手해야 한다.

⑥ 이 事業은 正確하고 또 신속하게 處理되어야 한다.

韓赤代表團은 이러한 6個項의 原則에 立脚하여 議題 第1項의 實踐을 위한 具體的 節次와 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4個項目에 合意

할 것을 提議했다. 첫째 事業의 節次에 있어서는

① 雙方 赤十字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로 부터 住所와 生死를 알아낼 것을 원하는 依頼를 接受하면 所定の 依頼書를 作成하여 相對方 赤十字에 수교한다.

② 雙方 赤十字는 依頼書에 記載된 照會事項을 신속히 調査한 後 그 結果를 所定の 回報書로 作成하여 依頼側赤十字에 수교한다

③ 雙方 赤十字는 相對側으로 부터 받은 回報書 內容을 지체없이 當初의 依頼人에게 알린다.

둘째, 南北赤十字間에 使用될 書式의 制定에 있어서는

①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依頼書

| 對象人에 관한 事項 | 依頼人에 관한 事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姓名 ○ 性別 ○ 生年月日 또는 現在年令 ○ 헤어진 時期 ○ 헤어질當時의 職業 ○ 헤어질當時의 住所 ○ 對象人을 찾는데 도움이 될 其他事項 (寫眞包含) ○ 對象人에 관한 消息을 알려 줄만한 다른 사람의 姓名 및 住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姓名 ○ 性別 ○ 生年月日 또는 現在年令 ○ 住所 ○ 對象人과의 關係 |

②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回報書

| 事 項 別 | | 內 容 |
|------------|-----------|---|
| 對象人에 관한 事項 | | ○ 姓名, ○ 性別 ○ 生年月日 또는 現在年令 |
| 確認事項 | 生者の 消息 | ○ 住所 ○ 家族事項 ○ 健康狀態 ○ 職業 |
| | 死者의 消息 | ○ 死亡年月日 ○ 死亡場所 ○ 死亡原因 ○ 上 ○ 上 墓所在地 또는 奉靈場所 ○ 遺族消息 (寫眞包含) |
| 依頼人에 관한 事項 | | ○ 姓名 ○ 性別 ○ 年令 ○ 對象과의 關係 ○ 住所 |

세계 事業機構 設置問題에 있어서는 雙方 赤十字는 家族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文件交換業務를 取扱하도록 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板門店 事業所」를 설치하며 設置, 運營에 관한 細部的 事項은 따로 定한다.

북측 事業의 開始時期에 대해서는 雙方 赤十字는 議題 第1項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個月 以内に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文伴을 文換하기 始作한다. 以上과 같은 韓赤代表團의 立場과 提案은 赤十字 國際委員會가 오랫동안 펼쳐 尋人事業原則과 節次를 充實하게 따른 것이었다.

이에 對해 北赤側은 議題 第1項 討議의 原則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提起했다.

- ① 主体的 立場을 堅持한다.
- ② 民主主義 原則과 自由로운 原則을 徹底히 貫徹한다.
- ③ 南北間 互相 理解와 信賴를 두터이 하고 民族的 和睦과 大團結을 圖謀하는 原則을 堅持한다.
- ④ 赤十字 人道主義의 原則을 徹底히 堅持한다.
- ⑤ 羣族的인 은 民族事業으로 推進해나가는 原則을 徹底히 具顯한다.

이러한 原則下에 議題 第1項의 實踐方案으로 北赤側은 다음의 4 個項을 提案했다.

① 南北의 現情況下에서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露出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南韓側에서 모든 法律的 社會的 장애를 除去하며, 當事者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도록 한다.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事業을 원만하게 保障하며 南北사이에 互相 信賴와 理解, 民族的 大團結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雙方이 적당한 수의 赤十字 了解, 解説人員을 각각 相對方 現地에 派遣한다.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의 範圍는 本人의 호소에 따라 定하며, 그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本人의 民主主義的 要求와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따라 定하게 된다.

④ 以上 問題들에 대한 合意事項을 成果的으로 実行 保障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를 設置하며 必要한 곳에는 赤十字代表部들을 각각 設置한다.

北赤側은 이 4個項目 提案 第1項의 이른바 「法律的 社會的 條件, 環境 改善論이란 韓國이 첫째 反共法 國家保安法等 反國家活動 團束法들을 폐기하고, 둘째 反共團體들을 解散하고, 셋째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政策들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說明했으며, 또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法」은 赤十字가 介入할 必要도 없이, 그리고 찾고 있는 相對方 家族 親戚의 住所나 生死를 확인함이 없이 當事者와 當事者의 協助者들이 相對側 地域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아내면 된다고 主張했다.

北赤側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 및 環境改善」主張은 大韓民國의 國內法秩序에 대한 明白한 內政干涉이기 때문에 政治的인 主張이라 하겠다. 또 赤十字奉仕活動에 있어 政治的 論爭의 介入을 禁止하고 있는 赤十字 基本原則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法」에 관한 北赤側 主張은 그 自体가 非現實的인 狀況일 뿐만 아니라 人道主義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合法的인 仲介者로서의 赤十字의 權能을 否定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赤代表團의 金泰禧團長은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環境改善」問題는 議題 第1項 討議의 先決條件이라고 뜻을 박음으로써 討議가 그 以上 進展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한편 韓赤의 李範錫 首席代表는 北赤側 立場의 不當性과 不合理性을 指摘하고 韓赤提案이 國際赤十字 基本原則과 慣例, 人道主義精神 그리고 同胞愛의 精神을 忠實하게 反映하고 있음을 說明하면서 議題 第1項의 實質討議가 早速히 이루어질 것을 거듭 促求했다.

李首席代表는 「赤十字會談에서 合意되는 人道的 여러 事業과 그 事業의 推進,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事業은 여하한 既存 法律的 社會的 沮害를 받지 않을 뿐더러 더우기 人道主義原則에 立脚하여 積極 그事業을 支援하는 것이 大韓民國 政府의 明白한 方針」이라고 천명했으며, 또한 「南北赤十字會談이 大韓民國側의 提議로 이루어졌다는 明白한 事實과 아울러 그동안 한쪽에서 59名씩 이라는 代表團 人員이 아무런 法律的, 社會的 迫害를 받음이 없이 南北을 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崇高한 人道的 努力때문에 오히려 찬양과 尊敬의 對象이 되어 있다는 嚴然한 事實을 例示하면서 會談에서 더以上 政治問題를 둘러싼 論爭을 벌리지 말고 赤十字 原則과 精神에 立脚해서 議題項目에 대한 討議를 進行시킬 것을 北赤側에 거듭 促求했다.

그러나 北赤側은 그들의 立場을 완강하게 固執했으며 1973年 5月9日 서울에서 열린 第6次 本會談에서는 議題 第1項에 관한 修正提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環境改善」問題에 대하여

① 反共法과 國家保安法等을 철폐하라
② 戰爭과 공포 분위기를 造成하고 民族的 對立과 反目を 고취하는 모든 活動을 禁止하며, 그러한 團體들을 없애고 韓國에서 緊張狀態를 완화하라.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을 찾기 위하여 南北을 내방하는 僑民者들과 겨레들의 苦痛을 풀기 위한 事業에 나선 協助者들 및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等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크들의 人身과 携帶品들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하고.

④ 政黨 社會團體, 公共機關 및 個人들이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事業을 積極 協調할 수 있도록 모든 條件을 保障하라.

둘째 「赤十字了解, 解說人員의 相對地域의 派遣」問題에 대하여

① 赤十字了解, 解說人員은 個 里(洞)에 1名이 該當되도록 派遣하며 市, 都을 單位로 活動한다.

② 赤十字了解, 解說人員들은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爽態를 了解하며 誤解와 不信任을 除去하고 互相 信賴와 民族的 和睦과 團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흩어진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人道的

事業을 원만히 保障하기 위한 解說事業을 하며, 갈라진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 주기 위한 效果的인 方途를 강구한다.

③ 赤十字 了解. 解說人員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等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한다.

세계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當事者들이 直接 相對側 地域을 自由롭게 다니면서 家族,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것을 基本方途로 하며 當事者들이 要求하는 間接的 補充的 方法들도 適用할 수 있다.

이같은 北赤側의 새 提案은 當初의 提案을 되풀이한 것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特히 새提案 가운데서 家族과 親戚들의 苦痛보다는 「갈라진 겨레의 고통」에 力點을 둔다거나 數萬名의 이른바 「了解. 解說人員」을 相對方地域에 파견하여 제멋대로 活動하게 하자든가,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데도 當事者가 直接 相對地域에 가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스스로 알아내게 하자는 등 適法한 赤十字 尋人事業보다는 一種의 政治的 「辯象事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이러한 北赤側의 主張으로 말미암아 南北赤十字 第6次 本會談은 實質問題에 관해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한채 그 幕을 내리게 되었다. 韓赤側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第1項을 實踐하는 方法에 좀처럼 合意가 이루어질 展望이 서지 않게 되자 7月 平壤에서 열

린 第7次 本會談에서 「今年 秋夕을 前後해서 南北雙方이 合意하는 一定한 數의 秋夕省墓訪問團을 組織해서 相對側 地域의 祖上의 墓所에 省墓를 하게 하자」고 提議했으나 北赤側은 大韓民國이 「法律的 與件과 社會的 環境」을 먼저 改善해야 된다고 從前의 主張을 되풀이 하여 韓赤의 提議를 거부했던 것이다.

問題 3 . 南北調節委員會 進行狀況과 問題點

가 . 會談進行狀況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朴正熙 大統領은 韓半島에서 戰爭 再發의 危險을 없애고 그동안의 不安定한 平和를 永續的이고 安定된 平和로 바꾸며 나아가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의 길을 트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사이에 人道的 赤十字會談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別個의 對話 通路를 開拓해야만 되겠다. 는 決斷에 到達했다. 이같은 決斷에 따라 1972年 5月 2日부터 5日까지의 사이에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極秘裡에 平壤으로 派遣되었다. 李部長은 平壤에 滯留하는 동안 金日成과 그의 冥弟이며 勞動黨 組織指導部長인 金英柱와 일련의 會談을 갖고 祖國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戰爭의 銃聲이 울리지 않게 하며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궁극적으로 分斷祖國의 統一이라는 民族的 悲願을 성취하는 問題에 關係 허심탄회한 意見交換을 가졌다.

李部長의 平壤 訪問에 答하여 北韓側은 당시 第2 副首相 朴成哲을 金英柱의 代理形式으로 秘密裡에 서울로 보냈다.

朴成哲 一行은 5月 29日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李部長과 일련의 會談을 가졌으며 朴大統領을 禮訪했다. 이러한 일련의 秘密交流訪問을 통해 南과 北은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의 發表에 合意하기에 이르렀다. 1972年 7月 4日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과 취지는 이러한 것이었다.

即 南과 北은 서로 侵略을 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에 依해 祖國의 統一을 追求하고, 그에 앞서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한 民族의 團結을 圖謀하기로 合意하고, 이를 ①自主統一 ②平和統一 ③民族의 大團結이라는 3個 統一原則으로 集約해서 明示했다. 또한 南北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關係를 改善하는 일이 무엇보다 至急하며, 이를 위해서는 不信과 誤解를 解消하고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를 위한 措置로 다음과 같은 事項들에 合意했다.

- ①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大小間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取한다
- ② 南北間에 多方面的 諸般交流를 實施한다.
- ③ 南北赤十字會談이 早速히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한다.
- ④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間의 諸般 問題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사이에 直通電話를 架設 運營한다.
- ⑤ 合意事項의 實踐과 合意된 原則에 따라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

이로써 南北間에는 南北調節委員會라는 常設적인 南北問題의 協議 調整機構가 탄생되었다.

南北은 1972年 10月 12日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1次會議에 이어 1972年 11月 2日부터 4日까지 平壤에서 開催된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에 合意를 보았다.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는 서울측에서 李厚洛 共同委員長을 비롯, 張基榮 前副總理, 崔圭夏 大統領特別補佐官, 康仁德 中央情報部 第9局長, 鄭洪鎮 協議調整局長이 參加했으며, 平壤側에서는 金英柱 共同委員長을 代理한 朴成哲 副首相과 柳章植 勞動黨 組織指導部副部長兼 對外事業部長, 李景錫 內閣 參事, 韓雄植, 金德賢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直屬 責任指導員이 參加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의 骨格은 事實上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를 期해 갖추어졌다.

이 會議에서 서울측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南北間 緊張緩和를 위한 始初段階의 措置로 南北間의 對南 對北 「라디오」放送과 休戰線에서의 擴声器 使用에 의한 對南, 對北放送, 그리고 宣傳傳單의 相互 살포 中止를 提議하는 한편 將來 있을 南北協力の 象徴으로 板門店에 南北調節委員會 共同事務局 建物을 共同建築할 것을 아울러 提議했다. 平壤側은 後者の 提議에 대해서는 「장차 토의하자」고 合意를 留保했으나 前者의 提議만 受諾 1972年 11月 11日 韓

時를 기해 合意된 措置를 發効시키기로 했다. 이 合議에서 合意 採擇된 「南北調節委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서

① 合意된 原則에 따라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②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僑別人士間의 廣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③ 南北間 經濟·文化 및 社會的 交流와 協力을 實施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④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軍事的 衝突防止 및 軍事的 對峙狀態 해 소문제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⑤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취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선양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등으로 規定했다.

合意書는 또 南北調節委員會는 雙方 共同委員長, 副委員長 各 1名 委員 各 2名, 幹事委員 各 1名으로 構成하되 委員의 級은 長, 次官級으로 하여 事前協議를 거쳐 雙方共同委員長이 任命하기로 규정했다. 또한 南北調節委員會안에 雙方 幹事委員들과 幹事 2名씩으로 構成되는 幹事會議을 두고, 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 5個分科 委員會를 두되, 그 設置는 南北調節委員會의 事業이 진척되는데 따라 逐次的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合意書는 南北調節委員會는 每 2~3 個月마다 서울과 平壤에

서 번갈아 열며, 幹部會議은 每月 1회씩 板門店에서 갖기로 했다.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은 1972年 11月 29日 서울에서 열렸고, 會議 參加者는 第2次會議 때와 모두 같았으나 다만 平壤側의 李景錫 內閣參事가 李完基 內閣參事로 交替되었다.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은 討議할 案件이 없었고 雙方은 當日로 共同委員長會議을 終結하고 南北調節委員會를 正式으로 構成하여 그 第1次會議을 即寺 開催하기로 合意했다.

서울側의 李厚洛 共同委員長과 平壤側의 金英柱 共同委員長을 代理한 朴成哲 副首相은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의 雙方 參加者들을 모두 南北調節委員會 委員으로 任命기로 相互 同意했다. 서울側의 張基榮委員과 平壤側의 柳章桓 委員은 자기 副委員長으로 任命되었다.

나. 雙方의 基本立場의 對立

南北調節委 第1次會議은 마침내 1972年 11月 29, 30日 兩日에 걸쳐 서울에서 開幕되었고 여기서 서울側은 南北關係의 改善은 相互 理解와 信賴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漸進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立場을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相異한 理念 制度로 말미암은 摩擦要因이 比較的 적은 經濟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實踐에 옮길 것을 提議했다. 서울側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선 經濟分科委員會를 設置 發足시킬 것을 提議했으며 아울러 調節委員會의 運營細則을 早速히 制定하고 幹事會議을 構成하며 共同事務局

을 設置하는 等의 調節委員會의 實務機能의 整備은 빨리 매듭짓자는 合理的인 提案을 내놓았다.

이에 對해 平壤側은 經濟와 文化 「合作委員會」 設置를 要求하고 調節委員會 實務機能을 整備하는 問題에는 消極的인 姿勢로 나왔다. 이 會議은 實質問題에는 아무런 具體的 合意를 이룩하지 못하고 雙方은

- ① 幹事會議을 早速히 構成하고
- ② 共同事務局을 早速히 設置하며
- ③ 調節委員會 運營細則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內容의 「共同發表文」에 겨우 合意하고 이를 發表하는데 그쳤다.

1973 年에 접어들면서 서울側은 2次會議의 主權側인 平壤側에 대 해 調節委員會의 早速한 開催와 幹事會議의 早速한 構成을 종용하 였고, 이에 대한 平壤側의 肯定的인 反應은 3月初에 가서야 나타 났다. 3月10日 板門店에서 第1次 幹事會議가 열렸고 3月14日 부터 16日까지 平壤에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2次會議의 분위기는 1972年 中盤期의 南北間의 對話의 분위 기가 평평하게 造成되었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前例없이 冷却되었다. 會議 直前 朴成哲 平壤側 共同委員長代理가 李厚洛 共同委員長을 禮 訪한 자리에서 「우선 南北間에 信賴와 理解의 분위기를 造成하자」 는 李厚洛 共同委員長의 종용에 대해 朴成哲은 「軍事問題의 解決 이 先行案件」이라고 主張하였다. 우리側이 理解와 信賴의 基盤造 成이 없이 大韓民國만이 一方的으로 軍事力을 弱화시켰다가 뜻하지

내
4
경

않았던 戰禍를 겪어야만 했던 6.25의 例를 들자, 朴成哲은 「過去는 過去, 現狀은 現狀」이라고 말함으로써, 南北對話를 硬化시키려는 北韓側 態度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結局 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은 아무런 合意事項도 없이 끝났고 形式的인 共同發表文案에도 合意를 보지 못했다.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은 73月6月12日부터 14日까지 서울에서 開催되었고 平壤側은 第2次會議때와 마찬가지로 軍備縮少, 兵力減縮, 軍裝備導入의 中止, 美軍撤収, 平和協定締結等 所謂 軍事5個項目의 先決解決, 그리고 政黨 社會團體 等 各界各層의 人士로 構成되는 政治協商會議 開催, 또한 政治, 軍事, 經濟, 文化, 外交等 5個分科委員會의 一括 設置等 提案을 띄붙이 하였다.

이에 對해 서울側은

- ① 調節委 幹事會議 및 共同事務局의 選管細則을 早速히 決定하여 調節委의 選管을 正常的인 本軌道에 올려놓을 것
- ② 會議을 보다 効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施設을 具備하기 위하여 板門店에 共同事務局 建設을 共同建築할 것
- ③ 合意事項을 誠實히 遵守하고 相互 不信을 解決하고 信賴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에 대하여 正直할 것
- ④ 調節委 안에 經濟와 社會 文化 分科委員會를 優先的으로 設置하여 經濟分野에서 南北間에 廣範한 交流를 實施함으로써 經濟的으로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措置를 實踐에 옮기며 社會分化分野에서도 廣範한 交流를 實施하여 社會的 共同利益과 便利를 追求하고

民族固有의 文化를 暢達하는 事業들을 實踐에 옮길것을 提案하였다.
그러나 平壤側은 軍備縮少等 軍事問題 先決과 5個分科委 同時 發
足等 그들의 主張을 固執함으로써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한채 會議
日程을 끝내고 말았다.

특히 서울側 李厚洛共同委員長은 南北相互間에 不信과 誤解를 없애
고 理解와 信賴의 새로운 南北關係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雙方
이

① 7.4 南北共同聲明을 民族의 平和憲章으로 誠實히 지켜 나가야
하며

② 人道的 赤十字會談을 하루바삐 成事시켜 離散家族들의 問題들
을 解決해 주어야 하며

③ 우리 南北調節委員會의 經濟分科委員會를 早速히 發足시켜 南北
間에

○ 經濟人 交流

○ 物資의 交流

○ 科學技術의 交流

○ 物資의 共同開發

○ 商品展示會의 交換開催

○ 商社의 交換 常駐等 經濟的으로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措置들
을 實踐에 옮겨야 하며

④ 또 社會 文化分科委員會를 早速히 發足시켜 南北間에

○ 學術, 文化分野의 交流

- 体育分野의 交流와 國際競技 單一팀의 構成
- 映画, 舞台藝術의 交流
- 考古學과 民族史의 共同研究와 開發
- 固有言語의 保存을 위한 研究
- 各種 社會人士와 團體의 交流
- 記者의 交流와 常駐
- 電信, 電話, 電報等 通信의 交流
- 觀光分野의 交流等を 提起하였다. 또한 이러한 具體的인 交流와 協力の 分野들을 開拓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社會를 서로에게 完全히 開放할 것」을 促求하였던 것이다.

問題 4 . 北韓側의 南北對話 中斷宣言과 韓國側의 撤回要求

가. 平壤側의 一方的인 對話 中斷宣言

1973年8月28日 하오 6時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의 이름으로 事實上 南北調節委員會를 通路로 하는 南北對話의 中斷을 一方的으로 宣言하는 것으로 解譯되는 長文의 聲明을 發表했다.

同聲明에서 金英柱는 「金大中씨 납치사건을 大韓民國 中央情報部가 主謀했다」고 獨斷하는가 하면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이 「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具體化하는데 反對하고, 말로는 完全開放을

말하면서 南北間의 合作과 交流를 위한 實際的 措置에는 反對했다』
고 主張하고, 또한 大韓民國政府가 「反共政策을 強化하여 愛國力
를 彈壓하고 民族分裂을 固定化하여 두개의 朝鮮을 造作하고 있다」
고 強弁하는 等의 激烈한 對南非難을 퍼부었다.

또 金英柱는 그自身과 함께 7.4 共同聲明의 署名者인 李厚洛共
同委員長에게 「강괴」「頭目」, 「徒黨」, 「파쑈」等 야비한 人士攻
擊을 敢行하면서 李厚洛共同委員長을 相對로 하는 會談의 繼續을
拒否하고 代身 交替될 사람은 「民族的 良心이 있고 民族分裂의
固定化를 反對하며 眞正으로 平和統一을 念願하는 사람」이라야 한
다는 條件을 내세웠다. 이러한 條件이 無理한 것임은 再論의 餘
地가 없거니와 이것은 合意를 위해 내놓았다기 보다는 合意를 양
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結局 南北對話를 앞졌다는 것으로 闕에
解積할 수 없다.

또 金英柱는 對話 繼續의 條件으로 大韓民國이

- ① 南北共同聲明의 原則을 尊重하고
 - ② 「2個의 朝鮮」路線을 淸소하고
 - ③ 祖國統一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憚壓을 그만두고 言
論, 出版, 集會, 結社, 示威等 人民들의 民主主義的 自由와 政黨 社
會團體들의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며
 - ④ 체포, 投獄된 愛國者들을 석방하라는 要求條件을 내놓았다.
- 여기서 南北共同聲明의 原則을 尊重하라는 要求는 賊反荷杖의 억지임
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밖에 要求를 풀이하면

- ① 大韓民國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취소하고
- ②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廢止하여 共産黨의 自由로운 行動을 保障하고
- ③ 또한 反共法 國家保安法에 위배되어 法의 判決에 依해 服役中인 間諜들을 석방하라는 要求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大韓民國의 體制가 北韓의 共産主義體制 쪽으로 同質化되기 前에는 對話를 다시 끊었다는 그들의 底意를 스스로 露出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나. 서울側의 平壤側 聲明撤回要求

이러한 北韓側의 一方的인 對話中斷 宣言에 대하여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은 8月29日 上午 10時 緊急記者會見을 갖고 北韓 當局者들에게 「다시 한번 理性으로 되돌아가 7.4 南北共同 聲明의 基本精神을 난폭하게 유린한 8月28日字 聲明을 即時 철회하라」고 強力히 促求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의 8.28 聲明이 7.4 南北共同 聲明의 基本精神에 正面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조목 조목 論 하고 「平和를 渴望하고 統一을 念願하는 民族의 與望을 外面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7.4 共同 聲明의 精神을 破壞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民族 叛逆行爲로서 歷史의 審判을 받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고 동시에 南北間에 進行되어 온 對話의 目的이 7.4 共同 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 ① 韓半島에 恒久的인 平和를 定着시키고
- ② 南北關係를 改善 發展시키며
- ③ 分断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여 南北의 5천만 民族의 永遠한 福祉와 繁榮의 길을 開拓하려는 崇高한 것임을 想起시키면서 大韓民國은 「어떠한 難關이 있더라도 7.4 共同声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誠實과 忍耐로 南北對話를 계속 이끌어 감으로써 겨레의 期待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決意에 추호의 變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의 8月28日 声明은 「端的으로 말하여 朴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 宣言이 國內外로 큰 支持를 받게 되고 다가오는 「유엔」總會上에서도 그들의 立場이 劣勢로 물리게 됨을 自認하고 當惑한 나머지 이를 謀免하려는 臨時 變通」이라고 論하고 結局 「平和를 指向하는 對話의 進行을 忌避하겠다는 것으로 解決될 수 밖에 없다.」고 概嘆했다.

또한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① 南北調節委員會와 幹事會議, 그리고 共同事務局의 運営 細則을 早速히 選擇하고 共同事務局을 早速히 發足시키며 共同事務局 建物を 板門店에 共同으로 건축하자는 大韓民國側의 거둔 提議를 北韓側이 繼續해서 外面한 事實.

② 7.4 共同声明의 中傷誹謗中止條件과 72年11月11日에 이루어진 相互誹謗中止合意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에서 各種 對南誹謗放送을 繼續 激化시켜온 事實.

③ 韓國側이 提議한 「南北韓 社會의 相互 完全開放」을 위한 幅넓은 交流와 協力方案을 具體적으로 提示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이 이를 拒否한 事實

④ 平壤側 共同委員長이 身病을 핑계로 한번도 會議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事實等を 例擧하고 果然 누가 7.4 共同声明의 精神을 위배했고, 果然 누가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위배했으며, 또 果然 누가 南北關係 改善의 具體化를 가로막았는가」고 反問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그가 昨年 11月 平壤에서 金日成을 만났을 때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守護하는 우리로서 궁극적인 希望은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이 必要없는 社會를 建設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北韓이 對南暴力革命指令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못박아 말했음을 밝히면서 「만약 北韓이 共同声明의 精神을 充實히 지켜 間諜들을 南派시키지 않았던들 우리가 間諜를 잡을 理由가 없으며 또 北韓이 對南革命指令을 내보내지 않았던들 國家保安事犯의 체포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北韓側 8.28 声明을 撤回할 것을 要求하는 8.29 声明의 마지막 部分에서 南北對話는 어떠한 難關이 있더라도 7.4 南北共同声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誠實과 忍耐로서 이끌어 가겠다고 決意를 다짐했다.

問題 5 . 南北對話의 懸案問題와 南北關係 改善努力

가 . 北韓側의 南北對話에 대한 基本態度

北韓側은 人道的 赤十字會談에서는 이른바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環境 改善」이라는 政治的 要求條件을,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에서는 所謂 「軍事 5個項目」을 各各 先行條件으로 完강하게 固執하고 있으며, 北韓側의 이러한 不合理한 主張을 바꾸지 않는 한 南北對話는 膠着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왜 어찌서 北韓側이 順序와 節次, 그리고 現實性을 度外視한 無理한 提案들을 내세워 두 갈래의 南北對話의 進展을 停滯시키고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南北對話는 그동안 那 많은 時間을 「原則」들의 討議에 소모했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美質的 改善에 기여하기 위하여 具體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方法과 節次를 論議하여 實踐에 옮기는 段階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段階에 와 있는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南北間의 現實을 보아 不合理하고 實現不可能한 主張을 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일까?

이 疑問에 對한 解答으로서 다음과 같은 推理가 可能하다.

即 北韓側이 적어도 當分間은 南北對話를 美質的으로 進展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다는 點이다. 그것은 73年에 들어와서 한동안 中止되었던 武裝間諜의 南派가 再開되었다는 事實에서 對話에 對한 北韓側의 眞意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1972年7月4日 그 歷史的인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기 하루 전인

7月3日 北韓側은 平壤의 中央放送을 통해 이른바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의 互相關係에 대하여」라는 석연치 못한 報道를 한 것을 우리는 아직도 記憶하고 있다. 이 放送에서

① 祖國統一은 韓國에서 美軍이 물러나고 人民民主主義革命이 勝利하여 人民들이 自己들의 政權을 잡을 때 北半部の 社會主義 力量과 南韓의 民主主義 力量의 固合된 힘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② 祖國統一은 南韓革命이 遂行되는 條件에서만 遂行될 수 있다. 그것은 南韓에서 反帝,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遂行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다.

③ 祖國統一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기치 밑에 民族解放革命을 全國的인 範圍에서 完遂하는 것을 自己 課業으로 하고 있다.

④ 祖國統一을 實現하는 데는 平和的 方法과 非平和的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南韓革命을 수행하는 데는 오직 暴力的 方法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好戰的인 北韓의 對南政策 發表가 하필이면 7.4 南北共同聲明이라는 平和宣言 發表 前夜에 이루어졌다는 데서 注目を 끌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南北對話에서 밝은 南北關係의 來日을 위해 結末을 보기 위해서는 北韓側의 平和에 대한 眞意가 보다 明白히 드러나는 政策을 分明히 밝히고 이를 實踐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南北 의 懸案問題와 改善努力

南北韓은 分斷 28年間 自由民主主義體制과 共產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로 區分되는 極端的으로 異質的인 政治體制를 發展시켜 왔기 때문에 經濟 社會 軍事等 諸般與件에서 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思想構造 乃至는 價値觀의 追求에서 마져 서로 융합할 수 없는 異質的인 境地에로 到達하고 말았다.

또한 南北韓은 6.25와 같은 처참한 同族相殘의 戰禍를 겪었고 그 뒤에도 北韓側은 各種 挑發行爲를 자행하여 赤化統一의 與件을 造成하려 했기 때문에 韓半島에는 緊張이 가실날이 없었다.

이러한 韓半島의 緊張은 北韓側이 金日成 偶像化를 完成시키는 過程에서 더욱 激化되었으며, 住民들로 하여금 狂的인 個人崇拜思想으로 武裝시키기 위하여 革命的인 戰爭의 熱氣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緊張造成政策은 金日成 偶像化가 完成될 무렵인 1968년에 그 絶頂을 이루었고, 朴正熙大統領 暗殺을 目的으로 青瓦台 寄襲을 노렸던 1.21 事態나 武裝間諜의 大規模 東海岸 上陸事件, 그리고 「푸에블로」號 事件과 EC-121 事件들이 모두 이 무렵에 發生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北韓側에 依하여 造作된 緊張狀態를 그대로 放置해 둘 수는 없다. 더군다나 60年代 後半부터 國際情勢는 脫冷戰現象을 指向하기 始作했다. 모든 國際的 紛糾를 現狀固定方式에 依해 解決함으로써 緊張의 緩和와 相互關係의 改善을 優先的으로 追求하는 脫「이데올로기」의 現實主義의 물결이 밀어 닥친 것이다.

北韓의 狂的인 緊張造成政策을 抑制하고 國際情勢와 能動的으로 對處함으로써 韓半島에서 戰爭의 위협을 除去하고 平和를 構築하기 위한 措置가 必要했고, 그것이 바로 1970年의 北韓에 對한 體制問의 善意的 競爭을 提議한 「8.15宣言」에서 나타났다. 그後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國民의 統一念願을 實現하기 위한 現實的 代案으로 1971年 8月 南北赤十字會談을 主導的인 立場에서 提議하여 人道的 次元에서 南北對話의 길을 열었다. 또한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으로 하여금 平壤을 秘密裡에 訪問케 하여 7.4 南北共同聲明을 生産케 했으며 이에 의거하여 南北調節委員會라는 새로운 次元의 對話의 通路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73年 6月 23日에는 南北對話의 不振 打開과 더불어 韓半島의 平和安着을 위하여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宣稱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南北關係에 관한 朴大統領이 내린 일련의 政策決斷은 한결 같이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의 危險을 除去하고 恒久的인 平和를 促進하며 南北關係를 平和的인 善意的 競爭關係로 誘導하여 分斷祖國의 統一障礙要因을 하나하나씩 없애 나가자는 目的이 있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南北關係는 對話의 一時的 中斷으로 말미암아 緊張狀態는 또 다시 야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時点에서의 懸案問題는 이 緊張狀態를 緩和하기 위하여 中斷된 對話를 다시 再開하기 위한 참을성 있고 성실한 努力이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北韓側의 非現實的이고 強奪的 對話條件을 現實的 合理的 對話條件으로 바꾸도록 誘導하고 一方的인 對話 中斷宣言을

撤回하도록 계속 追求하고 特히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을 實現시켜 北韓을「유엔」憲章 秩序와 國際社會에 編入시키므로써 國際的 現實感覺 속에서 南北對話의 必要性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南北對話의 膠着打開과 進展을 外部로 부터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南北對話의 懸案問題임과 同時에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앞으로의 우리의 努力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北韓側의 統一問題와 關聯된
提議의 不當性은 ?

1. 每... 2. 每... 3. 每...
4. 每... 5. 每... 6. 每...
7. 每... 8. 每... 9. 每...
10. 每... 11. 每... 12. 每...

2019年

10

IV. 北韓側의 統一問題와 關聯된 提議의 不當性은 무엇인가?

問 題 1. 聯邦制 實施 主張

가. 提議 經緯와 內容

北韓이 南北聯邦制를 처음으로 提案한 것은 4·19 革命後 韓國에서 民主黨政權이 樹立되고 平和統一論爭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60年의 8·15 紀念式에서 行한 金日成演說에서 비롯된다. 同 演說에서 그는 統一方案으로서

① 外勢干涉 없는 南北總選舉 實施

②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實施 (南北聯邦制는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独自の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會議을 組織하여 主로 南北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③ 上記提案에 同意치 않으면 南北의 產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經濟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했던 것이다.

이 같은 聯邦制提案은 그후 韓國의 5·16 革命으로 因한 情勢安全과 함께 北韓 內部的 戰爭準備政策으로 事實上 中斷되었다가 越南戰의 終戰展望이 뚜렷해진 1969年 8·15 紀念式에서 行한 金一의 演說에서 다시 提起되어 간헐적으로 主張해 오다가 그후 美, 蘇, 의 接近 및 美, 中共의 和解무드가 造成되기 始作한 1971年 4月

12日,北韓外相 許談이 發表한 8個項目의 統一方案 가운데 包含되는等 同一한 內容이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南北對話와 함께 公式的으로 聯邦制案을 提示한것은 1972年 9月 17日, 金日成의 日本「每日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였다.

金日成은 同會見에서 「平和的祖国統一을 하루빨리 實現하기 爲해서 우선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것이 必要하다. 우리가 主張하는 聯邦制는 南北의 現存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大韓民國政府의 代表로 「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南北間에 提起되는 政治, 經濟, 軍事 文化의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民族的團結을 이룩하자는 것이다」라고 說明하였다.

이어서 그는 聯邦制가 나라의 統一에 갖는 意義와 役割에 關해서

「이와같이 南北聯邦制를 實施하여 南北間에 모든 分野에서 광범한 交流와 往來가 實現되면 南北間에 不信과 차디찬 感情은 解消되어 서로 理解하고 信賴하는 雰圍氣가 造成됨으로써 民族的團結이 容易하게 이룩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받지 않고 民主主義的 南北總選舉를 通해 全朝鮮統一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 하였다.

그후 北韓은 南北對話가 本軌道에 들어감에 따라 第二, 第三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南北間에 軍事對峙狀態解消問題를 들고 나왔다.

이리하여 南北調節委員會에서 韓國側의 經濟, 文化分野의 交流先行 主張 對, 北韓側의 軍事問題 優先解決主張이 서로 맞서 對話는 停

頓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朴正熙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이 發表되자 金日成은 同日저녁 8時,

「후사크」 체코共産黨書記長을 為한 歡迎演說에서 다음과 같은 이른바 五大綱領을 提議했다.

- ① 軍事對峙狀態 解消
- ②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實施
- ③ 大民族會議 召集
- ④ 高麗聯邦制 實施
- ⑤ 高麗聯邦國號下에 UN 單一加入

以上 1960年 以後 現在까지 사이에 北韓이 提議한 聯邦制는 内容上으로는 그 어느것이나 同一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以前과 以後의 聯邦制提議에 있어 몇가지 特異點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對話以前에는 그들의 諸般統一方案中 聯邦制를 하나의 要素로 包含시켜 어느 하나를 扞一하라는 方式이었는데 對話以後에는 이를 止揚하고 다른 統一方案과 不可分하게 關聯시켜 提議하고 있는 點이다.

둘째, 對話以前에는 主로 宣傳 및 大衆的 鬭爭課題로 提起한데 비해 對話以後에는 宣傳과 大衆的鬭爭課題로서는 물론 南北間對話의 主題로서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셋째, 對話以前에는 聯邦制實施에 하등의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反해 오늘날에는 南北間의 軍事問題解決을 先行條件으로 들고 있다는 點이다.

나. 傳統國際法에 비추어본 北韓의 聯邦制案

첫째,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의 概念은 聯邦 (federation) 이 라기 보다는 國家聯合 (confederation) 의 性格이 濃厚하다.

北韓은 그들의 聯邦制를 說明하면서 「南北間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當分間 그대로 두고 聯邦制를 實現하며……」 또는 「獨立的 中央政府가 없는 條件에서……」云云은 韓半島에 두개의 主權國家가 存在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있고 또한 聯邦政府 樹立을 考慮치 않고 있다는 點에서 聯邦보다는 國家聯合의 性格이 짙다고 해석된다. 이는 東獨의 「울브리트」가 西獨에 對해 國家聯合案을 提示했던 1956年 以後에 北韓이 聯邦制를 提議했던 事實로 미루어보아 東獨의 國家聯合案을 模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北韓이 國家聯合構成에 關한 國際法的 基礎에 關해 言及이 없는것을 보면 순수한 意味의 國家聯合도 아닌 그 概念自体가 심히 不透明하고 애매모호한 屬性을 지니고 있다.

둘째, 聯邦制의 內容이 極히 貧弱하다. 傳統國際法上 聯邦制의 構成要素로서 一般的으로 聯邦憲法, 聯邦政府, 聯邦裁判所, 聯邦立法機關 및 聯邦과 支分國間의 權限配分問題等에 關한 어떠한 合意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이러한 根本問題에 關해서는 60年以後 現在까지 하등의 言及이 없고 다만 聯邦制의 口號와 必要性 및 成果에 對해서만 장황한 說明을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概念이 不透明하고 內容도 없는것을 主張하는 理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聯邦制를 提起하는 그 自体에서 對南宣傳 및 心理

戰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現實的인 南北關係要件은 聯邦制를 受容할 素地를 전연 갖추지 않고 있다.

歷史적으로 볼때 聯邦을 構成한 國家들은 大體로 異民族間이거나 歷史, 文化, 宗教가 相異한 土臺위에서 聯邦으로 統合해야할 理想的인 同質性을 發見하고 또 構成國間에 緊張이 배제되며 相互 協助的인 분위기가 造成될때 聯邦成立이 可能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南北現實은 單一民族으로서 歷史, 文化의 同質性을 견지하고 있으며 特히 理念, 思想面에서 民主主義 對 共產主義라고 하는 極端的 對決樣相을 보이고 있고 軍事的으로는 休戰線을 中心으로 아직도 緊張이 尚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同一한 國家目標追求를 前題로한 聯邦 構成은 전혀 不可能한 것이다.

또한 南北과 같이 두개의 支分國으로 構成되는 聯邦形態는 相互 國力의 均衡 維持가 엄격히 지켜질때 聯邦이 維持되는 것이며 그 어느 一方의 優劣이 나타날때는 이미 聯邦은 파괴되게 마련인바 南北韓이 現實的으로 이와같은 均衡維持를 保障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同時에 南北韓의 政治權力鬭爭論理上 聯邦制實施에 關한 合意成立은 곧 統一의 단계를 意味하기 때문에 北韓이 主張하드시 聯邦制가 統一에의 中間단계 (過渡的 措置)가 될수도 없는 것이다.

다. 聯邦制 主張의 底意

北韓은 當面한 對南戰略의 目標을 駐韓美軍의 撤収 및 韓美 紐帶關係斷絶과 韓國 反共體制弱化에 依한 人民 民主主義革命분위기

造成에 두고 있는바 聯邦制는 이러한 目標達成에 크게 기여 하리
라고 北韓은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即 그들은 聯邦制를 「完全合作」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니와 現在
南北韓間的 相互警戒 및 對決關係를 完全合作關係로 轉換하여 그
가운데서 合法的인 對南侵透와 自由로운 共產主義活動을 展開함으로
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有利的한 環境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또한 聯邦制를 採択하고 있는 國家의 大部分이 外交, 軍事分野에
關한限 單一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南北韓이
만약 聯邦制를 實施하게 된다면 單一外交 國防體制樹立과 對外活動
에서 共同步調를 取해야 함으로 기존의 韓美, 韓日紐帶關係의 弱화
乃至 斷絶은 물론 우리의 優勢한 國際活動이 그만큼 制約을 받게
되고 駐韓美軍의 撤收를 不可避하게 만들 狀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北韓이 聯邦制를 主張하는 底意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駐韓美軍撤收를 비롯한 韓美의 共同防衛 및 協力關係를 弱
化내지 斷絶시키려는 것이다.

(2) 南韓內的 広範한 階層과 統一戰線을 形成, 人民民主主義革命
을 達成하려는 것이다.

(3) 韓國의 反共體制 即 共產主義의 浸透를 막는 法的, 社會的
規制와 國民의 反共意識을 해이 시키려는 것이다.

(4) 國際的인 現狀固定化추세에 被動的立場을 取하면서 南北分斷
永久化 責任을 轉嫁하려는 것이다.

(5) 北韓内部의 住民들을 教養하고 結束시키는等 그들의 对内 政策遂行에 有用하기 때문이다.

(6) 海外僑胞에 對한 浸透工作에 利用하기 쉽다는것 等이라 하겠다.

結論的으로 北韓은 우리가 聯邦制를 拒否하고 있는 期間은 聯邦制를 对内外 宣傳의 重要手段으로 利用할 것이며 만약 南北韓 合意下에 聯邦制가 實施된다면 그가운데서 統一戰線戰術에 立脚한 南韓人民民主主義革命達成을 企圖할 것이나 이러한 目的達成이 어렵고 오히려 逆으로 北韓体制維持에 否定的 影響을 받을 경우 그들은 聯邦制를 民族分斷을 永久化시키는 手段으로 利用하리라고 생각된다.

問 題 2. 軍縮主張

가. 軍縮提議의 經緯와 內容

北韓의 軍縮提議는 1954年 「제네바」會議에서 當時 北韓外相 南日이 처음 提起한 이후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 主張으로써

그중 代表的인것은 1971年4月12日, 北韓外相 許談이 「最高人民會議 第四期 第五次會議」에 提出한 報告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同報告에서 軍縮의 內容과 名分에 關해 「美帝侵略軍이 물러간 다음 南北朝鮮의 軍隊를 各各 10万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取함으로써 共和國 北半部를 反對하는 侵略的 挑發行動이 더는 감행되지 않도록 하며 南北이 다 같이

美帝와 日本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鬭爭에 共同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人民들의 軍事費 부담을 덜어주고 南北朝鮮사이의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며 朝鮮에서 公告한 平和를 維持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이다」라고 說明했다.

그후 最近에는 지난 3月 14日에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會議에서 北韓 副首相 朴成哲이 提議한 것으로서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南北間 武力增強 및 軍備競争을 中止할것.
- ② 南北의 兵力을 相互 10万 또는 그 以下로 減縮할것.
- ③ 駐韓外國軍을 撤収시킬것.
- ④ 外國으로 부터 武器를 導入하지 말것.
- ⑤ 以上の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南北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軍縮問題를 들고나온것은 經濟交流과 社會文化分野의 交流를 먼저 實施하자고 提議한 韓國側 主張에 對한 응수라고 볼수 있지만 過去와는 달리 이 軍事問題 5個項이 先決되지 않는限 南北對話를 더 以上 진척시키지 못하겠다고 高집함으로써 事實上 南北對話를 停頓狀態에 몰아 넣고 말았다.

以上 1954年부터 現在까지 계속되고 있는 軍縮提議의 特徵을 보면 軍縮을 主張한 그때 그때의 時代的背景과 動機는 다르나 그 內容은 同一한 것을 되풀이 한것에 불과하며 國內外情勢가 主로 平和指向의 時期에 軍縮提議에 力點을 부여하고 있고 그중 強度가

第一 強 한것은 역시 駐韓外國軍 撤収로 集約된다. 또한 그들은 軍縮의 對象을 南北韓 正規軍과 裝備에만 局限시키고 있으며 軍縮을 平和協定の 內容으로 規定하고 있는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나. 軍縮主張의 底意

첫째, 南北調節委員會를 膠着狀態로 빠뜨리는 同時에 그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당초 北韓은 南北對話를 추진하는 過程에서 南韓社會에 소위 그들의 「革命氣風」이나 共產主義理念을 어느 程度,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計劃하고, 따라서 그들의 赤化統一戰略遂行에 有利한 발판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2年동안 南北對話를 추진해본 결과 그와같은 그들의 計算과 期待는 전혀 어긋났고, 오히려 閉鎖社會인 北韓의 취약점만 더 드러났을 뿐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十月維新으로 더욱 国力培養을 促進하고 건고한 反共總和體制를 구축하게 한 結果를 가져옴으로써 南北對話는 그들에게 보다는 韓國에 더 有利한 結果를 가져왔다고 判斷했음에 틀림 없다.

그렇다고 그들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기 爲한 南北對話를 깨트릴 수 있는 名分도 없음으로 南北對話는 계속하되, 實質的인 事業의 進陞은 抑制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듯 하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現段階에서 實現할 수 없는 어려운 問題들을 提議함으로써 南韓으로 하게끔 그들 拒絶케 하여, 南北對話의 膠着狀態에 對한 責任을 南韓에 전가하면서 南北對話의 夾

質的인 進前을 阻害하자는 計略을 行使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駐韓 UN軍의 解体를 促進시키려는 것이다.

北韓은 赤化統一이라는 基本戰略을 遂行하는데 있어 駐韓 UN軍, 의 駐屯을 가장 큰 障礙要素로 판단하고 모든 努力을 駐韓 UN軍 解体에 集中시키고 있으며 만약 駐韓 UN軍만 없다면 單獨으로 對南武力侵攻을 감행할 수 있는 條件이 造成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와같은 目的下에 北韓은 금년도 UN總會를 앞두고 軍縮問題를 크게 浮刻시킴으로써 UN軍解体를 골자로 하고 있는 共產側決議案의 通過를 爲한 事前분위기를 造成하는 同時에 美國內의 反戰與論에 便乘, 對韓 軍援의 삭감을 유도하는等 對外宣傳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北韓은 그들만이 平和指向的인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國際與論을 誤導하여 外交活動에 있어서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對內的으로 金日成 偶像化와 強力한 社會統制 및 軍事力 增強一辺倒 爲主의 政策推進과 對外的으로는 極斷的인 廢鎖性 및 「게리라」輸出 그리고 對南關係에서는 休戰協定違反, 武裝게리라 南派等으로 因해 國際적으로 「好戰的」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아왔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軍縮을 提議함으로써 과거의 「好戰的」 이미지를 反轉시키고 自己들이 南韓보다 더 平和指向的이라는 인상을 國

際社會에 投射함으로써 國際地位向上을 노리고 있다.

네째,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깨뜨림으로써 南韓에 힘의 真空狀態를 招來케 하여 武力赤化統一의 條件을 造成하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0万減軍問題

北韓이 南北韓兵力 (正規軍)을 10万 以下로 減軍하자고 提議하게 된 이면에는 그들의 방대한 民兵組織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위 4大軍事路線을 수행하여온 北韓은 표면상의 正規軍은 47万名에 불과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武力을 가진 140萬의 勞農赤衛隊와 70萬의 붉은 青年近衛隊가 있는데, 이들은 週 17時間씩의 戰鬪訓練뿐만 아니라 어느때 라도 총을들고 共用火器로 무장하여 正規軍으로 出動할 수 있게 訓練組織되어 있다.

이러한 正規軍못지않는 民兵組織은 軍縮의 對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軍縮으로 正規軍을 약간 줄이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韓國의 軍事力은 현저하게 弱化될 것이다.

即 韓國에는 郷土予備軍이 編成되어 있으나 이들에게는 칼번총도 제대로 配當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個人의 生業을 優先적으로 考慮하여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때문에 北韓側의 正規軍 10万減軍主張은 韓國의 防衛力만을 一方的으로 弱化시키고 그들의 軍事의優位를 維持하려는 술책이다.

② 外國으로부터 武器搬入 禁止問題

北韓은 이미 4大軍事路線에 依한 单独戰爭遂行能力을 具備하였을 뿐만아니라 日帝時에 남은 重工業施設을 軍需産業으로 轉用 繼續發展시켜 現在 戰鬪機를 除外한 모든 武器의 自給自足體制를 갖추고 있다.

이에 反해 韓國은 小銃 한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實情

이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韓國의 軍事的弱화를 노린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③ 美軍撤収 問題

北韓은 地理的으로 中共 및 蘇聯과 바로 隣接해 있을뿐만
아니라 이들과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美國과
防衛條約을 締結하고 있긴 하여도 美國과의 距離는 太平洋을 사이
에 끼고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 特殊性을 考慮해 볼때 美軍撤収
는 韓國의 安全만을 全的으로 위태롭게 하게된다.

結論的으로 南北韓이 相互信賴의 바탕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現
在의 條件下에서 軍縮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時期尚早며 만약 우리
가 受諾할 경우, 그것은 韓國軍事力의 一方的 弱화만을 超來하여
韓半島의 平和는 파괴될 것이다.

또한 실령 減軍에 同意를 한다해도 現在와같은 條件下에서는 減
軍을 監視할만한 機構가 없고 또 그것을 새로 만든다해도 休戰監
視委員團에 對한 경우처럼 자기들 비위에 안맞는다고 그活動을 저
해한다면 그 任務는 完遂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軍縮이 갖는 價值性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否定的 態度를 갖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南北韓이 戰爭이 아닌 平和的 方法에 依해 統一을 實現하려면
軍縮問題는 언젠가 考慮해야만 할 問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狀況을 造成하고 앞당기기 爲해서는 優先 南北韓間에 마찰
要因이 적은 問題인 非政治 非軍事分野의 交流를 優先 施行하여
相互理解와 信賴의 바탕을 마련한후 以上の 軍事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理想的인 南北關係 改善의 方向이며 順理인 것이다. 即 南
北韓間에 信賴와 民族의 同質性이 회복되어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
一政府樹立의 서광이 비치는 統一 一步直前의 狀況下에서는 軍縮도
可能하다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인 것이다. 끝으로 이 軍縮問題
는 南北韓이 処해 있는 現實을 볼때 南北의 自決的인 軍獨對話만
으로는 解決하기가 어려우며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周
邊 強大國들의 協力이 있을때만이 비로소 解決可能한것임을 考慮해야 한다.

問題 3. 平和協定締結 主張

가. 平和協定提議의 經緯와 內容

北韓의 平和協定締結主張은 앞서 軍縮과 마찬가지로 1954年 「제네바」會議에서 南日이 主張한데서 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70年代에 접어들어서는 71年 8月 10日, 金日成이 「뉴욕·타임즈」紙의 「레스턴」記者와의 會見에서 「韓國戰에서 이루어진 休戰協定을 終結시키고 平和協定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 후 72年 1月 10日 金日成이 日本 「요미우리」新聞記者에게 역시 南北間의 平和協定締結의 必要性을 밝혔으며, 또 지난 3月 14日에 열린 第二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朴成哲이 이른바 軍事問題 5個項의 하나로 平和協定締結을 主張했다.

나. 平和協定締結主張의 底意

첫째, 休戰協定의 無効化에 따른 駐韓 UN軍解体를 企圖하려는 것이다. 現在의 休戰協定은 그 締結当事者가 UN軍總司令官 「크라크」大將과 中共軍總司令官 彭德懷, 및 北傀軍總司令官 金日成等 三者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休戰協定을 없애고 그 代身 南北韓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할 경우 休戰協定소멸에 따른 協定當事者인 UN軍도 自動解体될 것이라는 것이 北韓側의 判斷인듯 싶다. 둘째, 對外的으로 그들의 平和愛護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韓國國民들의 反共意識을 해이 시키려는 것이다.

北韓은 軍縮과 마찬가지로 平和協定締結主張이 '緊張緩和와 和解追求'라는 國際輿論에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주로 國際情勢가

平和指向의時期에 이 主張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同時에 韓日國民의 反共意識을 이완시켜 그들의 統一戰線戰術驅使에 有用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軍縮提議의 目的을 두고 있다 .

세째 ,北韓은 平和協定締結에 依해 國際法上 韓國과 同等한 法的地位를 획득하여 國際地位向上을 試圖하고 있다 .

다. 評 価

첫째 ,平和協定은 現實的으로 아무런 實効性이 없는 提案이다. 思想과 理念, 制度가 極斷的으로 相異하고 不信이 깊은 現在의 南北狀況下에서 平和協定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런 實効性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오히려 그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相互 不信이 더욱 深化되고 새로운 마찰요인이 發生하게 되어 모처럼 門이 열린 南北對話를 저해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쉽다 .

그러므로 우리가 平和 , 善隣을 基調로 하는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하였듯이 北韓도 다시는 南侵하지 않는다는 確實한 証拠를 行動으로 實証하여 平和協定締結의 實効性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다 . 即 北韓은 7.4 共同声明의 성실한 준수는 물론 ①武力挑發의 포기 ②南韓革命戰略의 포기 ③ 4大軍事路線의 廢棄 ④武力增強路線의 포기등으로 먼저 분위기를 조성을 先行시켜야 한다 . 또 우리는 相互信賴의 幅을 넓히기 爲해서 먼저 離散家族의 再會 , 社會 , 文化 , 經濟交流等 信賴의 바탕을 넓힐수 있는 可能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둘째 , 現段階에서의 平和協定은 韓國의 安保를 破壞하고 오히려 平和를 威脅하므로 不當하다 .

韓半島에 戰史가 멎고 休戰協定이 맺어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北韓이 休戰協定을 違反하여 4大軍事路線等으로 軍事力을 增強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韓半島의 平和가 유지된 것은 U N軍이 주둔하고 우리의 總力安戩態勢로 戰爭 抑制力이 確保되어 南北間에 힘의 均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은 平和協定締結問題를 제기하면서 先決條件으로서 外國軍의 無條件撤収를 비롯하여 軍縮, 軍裝備導入禁止等 現在로서는 實現可能性이 없고 또한 韓國의 安戩를 害칠 것이 明白한 主張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가 北韓의 平和協定締結主張이 平和를 가장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威協하고 우리의 安戩를 위태롭게 하려는 主張이라고 말하는 所似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參考로 軍縮과 平和協定에 關한 歷史的記錄을 몇가지 살펴보면 軍縮協商으로 成功한 唯一한 「케이스」가 二次大戰直前の 「워싱턴」海軍軍縮協商을 들수 있으나 이것 역시 日本의 脫退로 곧 파탄에 直面하고 말았다.

또한 1480年부터 1940年까지 總 311個의 戰爭中 平和協定으로 戰爭이 終結된 것이 137個이나 平和協定없이 終結된 것이 174個로서 오히려 平和協定締結없이 戰爭狀態를 終結하고 平和를 回復한 事例가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要컨대 軍縮과 平和協定은 平和의 代案機能이 不振했고 오직 平和의 代案은 平和를 유지할 힘의 培養과 同盟關係強化에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問 題 4 . 政治協商 또는 大民族會議召集主張

가 . 政治協商 및 大民族會議主張의 經緯와 內容

지난 6月 23日, 朴正熙 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發表되자 10時間뒤, 金日成은 「체코」共産黨總秘書 「후사크」一行을 환영하는 연설을 통해서 統一問題에 關한 다섯가지 事項을 提案한 가운데 「南北各界各層人民들과 政黨社會團體代表들로 구성되는 大民族會議召集을 主張하였다 .

그런데 이 大民族會議는 北韓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되풀이 해온 南北政治協商論을 變形한것에 不過하기 때문에 이 政治協商提議 가운데 重要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①北韓은 1948年 3月 25日, 소위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이라는 名義로 「유엔」의 南北韓總選舉決議를 反對하면서 同年 4月 14日에 平양에서 全朝鮮 政黨, 社會團體代表者會議을 開催할 것을 제의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첫번째의 南北政治協商 提議였다 .

②1950年 6月 7日, 소위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는 호소문을 통하여 「平和統一의 모든 必要한 條件과 手段을 討議決定하기 위해 南北政黨社會團體 代表者協議會를 海州, 또는 開城에서 6月 15日~17日에 걸쳐 召集할것」을 提議해 왔었다 .

이같은 提議가 있는지 불과 18日뒤인 6月 25日, 北韓共産黨은 不法南侵을 감행했다 .

③ 1973年 4月 16日, 金日成은 평양을 訪問한 「시하누크」를 환영하는 軍중대회에서 「南北調節委員會에 各 政党, 社会团体代表 및 各界各層人士들을 參加시켜 그 幅을 넓히든지, 아니면 現調節委員會 事業은 그대로 進行시키고, 各界各層人事와 政党社会团体代表가 參加하는 政治協商會議을 召集하자」고 提議했다.

④ 그리고 지난 6月 23日에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은 「大民族會議」를 提案하기에 이르렀다.

나. 政治協商 및 大民族會議主張의 底意

첫째, 우리의 6.23 宣言이 內外的으로 肯定的 反應을 불러 일으키자 자기들의 守勢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宣傳手段으로 聯邦制와 더불어 南北韓의 「大民族會議」를 提議하여 우리가 統一問題를 「유엔」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을 가졌다고 逆宣傳하며,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民族主体意識에 立脚해서 統一努力을 自主的으로 경주하고 있다는 民族主義的立場을 부각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南北對話가 北韓側이 企圖하던대로 進展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교착상태에 빠트리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의 南北對話 과정을 통하여 調節委員會에서는 그들의 主張이 먹혀들지 않고 그들 뜻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調節委員會의 機能과 役割을 無力化시키고 調節委員會를 통한 對話의 進歩를 저해하여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調節委員會처럼 組織的인 專問家가 아닌 非組織的이고 非專門家인 民間人事들을 無秩序하게 參與시키는 政治協商會議를 통해서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려는 속셈에서 大民族會議과 같은 別個의 協議體構成을 제의하고 있다.

만약 政黨, 社會團體 및 各界各層의 人士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나 政治協商會議를 가질 경우 北韓은 唯一體制이기 때문에 어떠한 民間代表가 參與하더라도 行動統一을 期할 수 있지만, 多樣性和 自由를 尊重하는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虛點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들의 宣傳에 說得當하여 南韓의 國論이 分裂되기 쉽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北韓側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國論의 分裂을 造장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세제, 만일 우리가 그들의 제의에 應할 경우 그들은 이를 통해 소위 「合作」에 의한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다.

北韓이 大民族會議와 政治協商會議를 열자고 하는것은 中國에서의 「國共合作」과 東歐 共產國家에서의 「左右聯立協商」과 같은 소위 「合作」에 의한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 目的을 內包하고 있다. 共產主義에 있어서 統一戰線이란 그들의 當面 革命鬪爭課題에 政治的 利害關係를 같이하는 政黨, 社會團體 및 여러 社會 階層과 提携하여 行動統一을 期함으로써 敵을 獨孤시키고 革命課業을 達成하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1966年 10月 金日成은 소위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南朝鮮革命的 統一戰線은 反美, 救國統一戰線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都市小資產層과 民族 「부르조아지」等 南朝鮮의 広範한 階層이 美帝國主義 植民地 統治下에서 苦痛을 겪고 있다.

이것은 美帝와 그와 結託하고 있는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들을 反對하는 各界各層 人民들의 反美 救國統一戰線을 形成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이라고 주장함으로써 政治協商의 目的이 赤化統一革命完遂를 爲한 統一戰線의 形成에 있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統一戰線을 政黨, 社會團體의 指導層으로써 形成되는 「上層統一戰線」과 各界各層의 群衆으로써 形成하는 「下層統一戰線」으로 区分하고 下層統一戰線을 基本으로 하면서 이에 기반을 둔 上層統一戰線을 形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므로 北韓이 聯邦制를 제의하면서 「最高民族會議」를 구성하고자 主張하고, 또다시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자는 제의는 分明히 上層統一戰線과 함께 下層統一戰線을 形成하여 유기적으로 活用하려는 것임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다. 評 価

첫째, 7. 4 南北共同聲明에 위배되는 일이다.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자는 7. 4 南北共同聲明에 合意하고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하여 本格的인 南北對話를 始作한지 불과 1년도 못되어 調節委員會와는 별도로 또 다른 協議體를 만들자고 하는것은 7. 4 共同聲明의 精神을 스스로 위배하는 處事라 아니 할수 없다.

둘째, 政治協商이나 大民族會議를 開催해야만 南北間의 和解가 잘 된다는 아무런 保障도 없다.

現在 進行中인 南北對話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問題들이 南北의 政党, 社会团体 및 個別的人士間的 對話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아무런 保障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욱 심한 混亂과 異見만 속출할 것은 너무나도 뚜렷한 일이다.

問 題 5. 「유엔」同時加入 反對

가. 「유엔」同時加入反對主張의 內容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있었던 지난 6月 23日, 金日成은 「체코」 共産党 幹部를 爲한 환영군중대회에서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UN에도 北과 南이 各各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統一이 이루어지기 前에 UN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聯邦制라도 實現된 다음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國家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 發言은 6月 23日 朴正熙大統領이 『UN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題下에 北韓이 우리와 함께 UN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한데 對한 北韓側의 첫 反應이었다.

요컨대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은 祖國의 分斷을 永久化시키는 것

이기 때문에 反對한다는 것이 北韓側의 論理이다.

나. U N 同時加入反對의 背景과 底意

北韓은 오래前부터 國題的인 獨孤에서 벗어나 「두개의 한국」을 既定事實化시키고자 여러 나라로부터 承認획득에 努力하는 한편, 여러 國際機構에의 加入을 爲해 全外交力量을 기우려 왔다.

1949年 1月과 1951年 12月 두번에 걸쳐 우리가 U N 加入을 申請했을때, 北韓은 바로 우리 뒤를 따라 1949年 2月과, 1952年 1月, 두차례에 걸쳐 U N 加入을 申請한 일이 있다.

그러나 孤立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對外的 努力은 아무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1970年代에 접어들어 國際情勢가 平和共存의 추세로 격변하게 되자 그들은 國際潮流에 便乘하여 지난 4月 28日에 I. P. U (國際議員聯盟)에, 그리고 5月 17日에는 W. H. O (世界保健機構)에, 7月 20日에는 「운크타드」(U N 貿易 開發會議)에, 차례로 加入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國際機構 및 U N 산하기구에의 加入을 契機로 마침내는 U N에 「옵서버」代表部까지 設置하였다.

이와같이 北韓은 지금까지 두번씩이나 U N에 加入申請을 내고, 또 U N 「옵서버」代表部設置까지 完了하는 등 實際로는 U N 加入 效果를 노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南北韓의 U N 同時加入을 反對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二律背反的인 外交政策의 底意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 北韓은 實際 內面的으로 「두개의 韓國政策」을 追求하면서 外形上으로는 이를 음폐하고 자기들만이 「하나의 韓國」 即 統一

指向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것 처럼 가장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北韓은 國際機構에의 同時加入實現으로 이미 祖国의 分断固定을 意味하는 「두개의 韓國」政策을 실천에 옮겼으면서도 우리의 UN同時加入主張이 分断을 永久化시키는 것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은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 조금도 論理에 맞지 않는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北韓의 實際政策方向을 잘 모르는 南韓 國民들이나 外國사람들에게 民族主義로 분장한 그들의 聯邦制下에서의 單一UN加入主張이 마치 統一指向的政策인양 선전함으로써 祖国統一을 갈망하는 5千萬 民族의 感傷的 統一念願을 刺戟하여 分断固定化의 責任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對外的持支를 얻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둘째, 그들은 UN에 加入하지 않고도 UN에 加入한 效果를 올릴 수 있기때문에 現在의 地位를 계속 確保하면서 對UN선전活動을 전개하고 同時에 UN에 加入함으로써 波生되는 平和守護義務等의 制約을 받지 않으려는데 UN同時加入을 反對하는 底意가 있다.

다. 評 価

첫째,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이 바로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祖国分断의 固定化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6.23 선언은 폐쇄적인 北韓을 國際社會에 參與시켜 그들의 社會를 開放化 乃至 自由化시킴으로써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國際질서와 平和構築努力에 順應케 하기 위한 實質的인 平和統一接近策인 것이다.

또한 6.23 선언 末尾에 『이러한 措置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니다』하라고 留保宣言을 한 것은 充分한 國際法的 努力을 發生하는 것으로써 이는 祖国의 永久分断을 排除하고 「하나의 韓國」을 指向하는 우리의 強力한 統一意志의 表示이기도 하다.

둘째, 南北韓이 同時に U N에 加入한 後라도 祖国統一만 되면 U N代表權을 單一化하는 것은 極히 간단한 節次에 불과한 問題이다. U N加入의 特殊形態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하나의 國家, 세계의 代表者』型

蘇聯은 하나의 聯邦國家이지만 U N에서는 蘇聯邦에 屬한 白「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代表權을 갖고 있다.

②『하나의 民族, 두개의 國家』型

東, 西獨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③『두개의 國家가 合併하여 U N代表權을 單一化한』型

「탄자니아」와 「잔지바르」는 원래 各己 別個의 獨立國家로써 U N에 加入했으나 64年 4월에 「탄자니아 聯合共和國」이라는 國호로 統合되었고, U N代表權도 單一化되었다.

④『한 國家가 分裂하여 U N代表權이 두個로 된』型

「싱가폴」은 65年 8월에 「말레이시아」聯邦으로부터 分離獨立하자, 하나의 獨立國家로서 U N에 加入하였다.

⑤『『두개의 國家, 두개의 代表權』이 「하나의 國家, 하나의 代表權」이 되었다가, 다시 「두개의 國家, 두개의 代表權」으로 分離된』型

원래 따로 따로 UN에 加入했던 「에집트」와 「시리아」는
58年 2월에 UAR이라는 單一國號로 合併하자 하나의 代表權으로
單一化되었으나 61年 9월에 「시리아」에 「쿠테타」가 發生하여
다시 분리되자 代表權도 두개로 다시 認定되었다 .

以上과 같은 UN加入의 여러가지 前例로 볼때 UN에 加入하여
그 代表權을 얻는다는 것이 곧 그 國家型態의 永久不變을 意味하
는 것은 아니며 加入한 國家의 事情에 따라 얼마든지 合併 또는
分離할 수 있는 것이다 .

問 題 6. 五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主張

가. 5個分科委員會·同時設置主張의 內容

지난 3月 14日에 열렸던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 會議에서 우리측은 南北關係改善을 단계적으로 이룩한다는 基本方針下에 優先 争点이 적은 經濟, 社会, 文化分野의 交流를 통해 相互信賴의 발판을 넓혀 나가는 것이 統一의 捷徑임을 밝히고 이를 實踐하기 爲하여 南北調節委員會內에 經濟分科委員會와 社会, 文化分科委員會를 設置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에 对하여 北韓側은 「軍事問題 5個項을」 먼저 해결하자고 主張하고 이를 爲해 經濟, 文化分科委員會뿐만 아니라, 政治, 軍事, 外交分科委員會도 함께 發足시켜야 한다는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案」을 들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軍事問題 5個項」과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 主張이 관철되지 않는限,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을 더 이상 進陞시킬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텨 南北對話를 事實상 停頓상태에 빠트렸다.

나.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主張의 底意

첫째, 北韓은 全般的인 南北交流를 實施할 수 있는 基盤이 갖추어져 있지않은 現時点에서 實現不可能한 提議를 함으로써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빠트리어 時間을 벌자는 意圖인듯 싶다.

둘째, 우리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提案을 내놓아 우리로

하여금 이를 拒否케 함으로써 對話不振의 責任을 우리側에 전가시켜 韓國에 對한 國際的 與論을 惡化시키자는 것이다.

세째, 韓國問題의 實相을 모르는 第三者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提案을 함으로써 自己들만이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해서 努力하고 있는 양 對外的으로 宣傳하려는데 그 底意를 두고 있다.

다. 評 価

첫째, 政治, 軍事, 外交分野等은 가장 對立要因과 摩擦要因이 많은 分野로써 이에 關係되는 問題들을 解決하기 爲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相互信賴의 基盤과 緊張緩和의 분위기 造成이 絶對 必要하다. 그런데 아직 相互信賴의 發판이 허약한 現段階에서 5個 分科委員會를 同時에 設置해서 政治性이 介在된 어려운 問題들을 論議의 軸점으로 제기한다면 紛爭만 生길뿐 아무런 合意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北韓側의 이러한 提案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 ③(다)항 「各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進陟되는데 따라 設置한다」에 違背됨으로 不當하다.

問 題 7.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 要求

가.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 要求의 内容

72年 10月 24日, 南北赤十字會談 第三次 本會議에서 우리側은 議題 第一項인 『南北에 흩어진 離散家族들과 친척들의 生死와 住所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問題』를 討議함에 있어, 이를 實踐할 具體적인 方案으로서 赤十字社가 事業을 主管해서 흩어진 家族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相對方 赤十字社를 통해 알아내는 것으로 하고 그를 爲해 판문점에 共同事業所를 設置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에 對하여 北韓側은 赤十字本然의 事業과는 아무 關係도 없는 소위 『法律的, 社会的 障礙를 除去하고 環境을 改善하라』는 엉뚱한 主張을 들고 나왔다.

그들이 主張하는 内容은 다음과 같다.

『南北에는 北韓 사람과의 接觸이나 書信往來를 排除하는 一連의 法律이 存在한다. 南韓의 法에 依하면 北韓住民에 對한 書信連絡과 金品提供等에도 重刑을 加하게 되어있고, 北韓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法律을 그대로 두고서는 赤十字事業을 實現할 수 없다. 그러므로 南韓에서 施行하고 있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撤廢하고 反共團體를 解散하며, 共產主義에 反對하는 政策과 教育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北韓側의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 要求」는 事實상 赤十字 本然의 事業이 아닐뿐 아니라 政治的次元에 속하는 일인데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굳이, 이 問題를 赤十字會談에서

提起하면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限 다른 問題의 討議를 할수 없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강탈적 要求는 第7次 會談때까지 數번 되풀이 함으로써 赤十字會談을 사실상 교착狀態에 빠뜨리고 있다.

나. 法律的, 社会的 与件 및 環境改善要求의 底意

北韓側이 赤十字本然의 事業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法律的, 社会的 障礙除去 要求와, 「赤十字了解 解說人員」의 自由往來를 主張하는 底意는 우리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廢棄케 함으로써 南韓에서 合法的이고도 公開的인 方法으로 共產主義活動을 벌일 수 있게하여 소위 그들의 革命的분위기를 造成하고 革命勢力을 부식시키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北韓은 統一의 基本戰略으로써 6.25와 같은 武力手段에 依해 南韓을 合併하는 方法과 南韓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여 새로 樹立될 人民政權과 北韓政權을 統合하는 方法等 두가지 方式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現段階에서는 武力侵攻은 도저히 勝算이 없음으로 南韓革命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고 判斷한듯 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革命분기를 可能케 하기 爲해서는 南韓에서 共產主義活動이 許容되어야 하고 社會不安이 造成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 北韓으로서는 共產勢力의 挑發과 破壞活動을 막고있는 우리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이 그들의 革命遂行에 큰 障礙가 되기 때문에 이를 廢棄케 함으로써 即, 合法的으로 南韓에 共產主義를 부식시키고, 社會교란因을 增大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韓國

問 題 6. 五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主張

가. 5個分科委員會·同時設置主張의 內容

지난 3月 14日에 열렸던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 會議에서 우리측은 南北關係改善을 단계적으로 이룩한다는 基本方針下에 優先 争点이 적은 經濟, 社会, 文化分野의 交流를 통해 相互信賴의 발판을 넓혀 나가는 것이 統一의 捷徑임을 밝히고 이를 實踐하기 爲하여 南北調節委員會內에 經濟分科委員會와 社会, 文化分科委員會를 設置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에 對하여 北韓側은 「軍事問題 5個項을」 먼저 해결하자고 主張하고 이를 위해 經濟, 文化分科委員會뿐만 아니라, 政治, 軍事, 外交分科委員會도 함께 發足시켜야 한다는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設置案」을 들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軍事問題 5個項」과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 主張이 관철되지 않는限,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을 더 이상 進陞시킬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텨 南北對話를 사실상 정돈상태에 빠트렸다.

나.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主張의 底意

첫째, 北韓은 全般的인 南北交流를 實施할 수 있는 基盤이 갖추어져 있지않은 現時点에서 實現不可能한 提議를 함으로써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빠트리어 時間을 벌자는 意圖인듯 싶다.

둘째, 우리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提案을 내놓아 우리로

하여금 이를 拒否케 함으로써 對話不振의 責任을 우리 側에 전가시켜 韓國에 對한 國際的 輿論을 惡化시키자는 것이다.

세째, 韓國問題의 實相을 모르는 第三者가 보기에는 그럴 듯한 提案을 함으로써 自己들만이 祖國의 平和統一을 爲해서 努力하고 있는 양 對外的으로 宣傳하려는데 그 底意를 두고 있다.

다. 評 価

첫째, 政治, 軍事, 外交分野等은 가장 對立要因과 摩擦要因이 많은 分野로써 이에 關係되는 問題들을 解決하기 爲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相互信賴의 基盤과 緊張緩和의 분위기 造成이 絶對 必要하다. 그런데 아직 相互信賴의 발판이 허약한 現段階에서 5個 分科委員會를 同時에 設置해서 政治性이 介在된 어려운 問題들을 論議의 軸점으로 제기한다면 紛争만 生길뿐 아무런 合意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北韓側의 이러한 提案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合意書」 ③ (다) 항 「各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事業이 進陞되는데 따라 設置한다」에 違背됨으로 不當하다.

問題 7.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 要求

가.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 要求의 内容

72年 10月 24日, 南北赤十字會談 第三次 本會議에서 우리側은 議題 第一項인 『南北에 混어진 離散家族들과 친척들의 生死와 住所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問題』를 討議함에 있어, 이를 實踐할 具體적인 方案으로서 赤十字社가 事業을 主幹해서 混어진 家族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相對方 赤十字社를 통해 알아내는 것으로 하고 그를 爲해 觀문점에 共同事業所를 設置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에 對하여 北韓側은 赤十字本然의 事業과는 아무 關係도 없는 소위 『法律的, 社会的 障碍를 除去하고 環境을 改善하라』는 엉뚱한 主張을 들고 나왔다.

그들이 主張하는 内容은 다음과 같다.

『南北에는 北韓 사람과의 接觸이나 書信往來를 排除하는 一連의 法律이 存在한다. 南韓의 法에 依하면 北韓住民에 對한 書信連絡과 金品提供等에도 重刑을 加하게 되어있고, 北韓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法律을 그대로 두고서는 赤十字事業을 實現할 수 없다. 그러므로 南韓에서 施行하고 있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撤廢하고 反共團體를 解散하며, 共產主義에 反對하는 政策과 教育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北韓側의 「法律的, 社会的 条件 및 環境改善 要求」는 事實상 赤十字 本然의 事業이 아닐뿐 아니라 政治的次元에 속하는 일인데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굳이, 이 問題를 赤十字會談에서

提起하면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限 다른 問題의 討議를 할수 없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강탈적 要求는 第7次 會談때까지 每번 되풀이 함으로써 赤十字會談을 事實上 교착狀態에 빠뜨리고 있다.

나. 法律的, 社会的 与件 및 環境改善要求의 底意

北韓側이 赤十字本然의 事業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法律的, 社会的 障礙除去 要求와, 「赤十字了解 解說人員」의 自由往來를 主張하는 底意는 우리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廢棄케 함으로써 南韓에서 合法的이고도 公開的인 方法으로 共產主義活動을 벌일 수 있게하여 소위 그들의 革命的분위기를 造成하고 革命勢力을 부식시키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北韓은 統一의 基本戰略으로써 6.25와 같은 武力手段에 依해 南韓을 合併하는 方法과 南韓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여 새로 樹立될 人民政權과 北韓政權을 統合하는 方法等 두가지 方式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現段階에서는 武力侵攻은 도저히 勝算이 없으므로 南韓革命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고 判斷한듯 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革命분기를 可能케 하기 爲해서는 南韓에서 共產主義活動이 許容되어야 하고 社會不安이 造成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 北韓으로서는 共產勢力의 挑發과 破壞活動을 막고있는 우리의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이 그들의 革命遂行에 큰 障礙가 되기 때문에 이를 廢棄케 함으로써 即, 合法的으로 南韓에 共產主義를 부식시키고, 社會교란要因을 增大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韓國

政府를 전복하겠다는 속셈이다.

특히北韓側은 이산가족의 生死와 住所를 確認함에 있어서 赤十字社가 介入할 必要없이 當事者나 「赤十字了解解說人員」이 相對方 地域을 自由롭게 다니면서 家族과 친척을 찾게하고 또 이들 「了解解說人員」에게는 言論, 出版, 集會, 通行等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携帶品들에 對한 不可侵權을 認定하자고 主張하고 있다.

말하자면 「赤十字了解解說人員」이 全國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共產主義宣傳을 하고 共產主義冊子를 뿌리며 소위 그들의 政治的 群衆事業을 벌이더라도 체포하지 말아야 한다는 論理이다.

이러한 그들의 主張은 이산가족과 친척을 찾는다는 名分아래 共產主義活動을 合法的으로 수행하자는 계략임이 너무도 明白하다.

다. 評 価

첫째,北韓側의 이른바 「法律的, 社会的 与件 및 環境改善」要求는 우리의 法秩序에 對한 內政干涉이며, 疑問의 余地도 없는 政治的 主張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反共法과 反共體制는 赤十字事業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의 對內的인 政治問題이며 社會體制問題인 것이다.

赤十字人끼리의 對活에 政治的 問題를 介入시켜 拳論한다는 것은, 모든 政治性을 超越한다는 赤十字基本精神에도 正面으로 違背되는 것이며 離散家族의 人間的인 苦通을 덜어주기 爲한 人道的인 南北赤十字會談의 目的과도 根本的으로 背馳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7.4 南北共同声明의 基本精神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7.4 共同声明의 第一項 세째에는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피차 相對方에 對한 「內政不干渉」原則과 「體制不干渉」原則을 밝힌 것이다. 南北은 分斷 四半世紀동안에 피차 判異한 思想과 理念 및 制度를 굳혀 왔다.

따라서 처음부터 思想과 制度를 따진다고 하면 對話가 成立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은 論議의 對象에서 일단 제쳐 놓자는 것이 7.4 共同声明의 基本精神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自由主義理念과 反共體制에 對하여 曰可曰否한다는 것은 「思想과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超越한다」는 共同声明과 南北對話의 基本 精神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對話自体를 不認하는 行爲이다.

세째, 北韓側은 우리의 反共體制가 赤十字事業에 障礙要素가 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現實的으로 아무런 障礙要素가 되고 있지 않다.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의 雙方代表가 이미 法律的, 社會的인 條件에 拘束이 없이 自由로이 南北을 往來하며 會議를 거듭하고 있다는 엄연한 事實은 우리의 反共法이나 社會體制가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爲한 事業進捗에도 아무런 障礙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